

[정책혁신소위원회 기후-예술 워킹그룹 활동보고]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제안서

담당부서 : 경영전략본부 정책혁신부

집필자 : 이원재, 성지수, 윤민지, 정유란, 나혜영

I. 개요

II. 문제설정 : 기후위기 시대와 문화예술

III.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과제

IV. 결론 :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개선방안 제언

1. 개요

1. 워킹그룹 활동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는 주요 미션으로 '예술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설정하고 '예술의 현재성', '기후위기와 예술', '예술과 기술'을 주제로 하는 워킹그룹 운영
- '기후위기와 예술' 워킹그룹은 예술정책 환경변화에서 위협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그리고 대전환의 국가비전 '한국판 뉴딜' 이슈에서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
-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탄소중립과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국가비전과 정책을 제시
 -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2050 탄소중립 요구'(2018)에 따라, 정부는 2020년 UN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2020.1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2021.8)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위한 이행체계를 법제화
 -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을 발표. 이와 관련하여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적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됨
- 정부는 한국형 뉴딜사업, 탄소중립기본법 등을 마련하면서 대전환을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연계 방안은 부재한 상황
 -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탄소중립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나, 문화예술 부문(문화체육관광부)의 메시지와 정책은 부재한 상황
 - 한국판 뉴딜사업에서도 디지털 뉴딜사업에 문화예술분야 데이터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통합적 관점과 개별 뉴딜사업 모두에서 문화예술 관련 의제가 부재. 이에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목적

- 기후-예술 워킹그룹은 기후위기 시대의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을 탐색하고, 예술 현장과의 협력 및 공론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예술정책을 도출제안하고자 함. 구체적 활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관련 각 분야 전문가와의 논의 그리고 국내외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의 담론을 구성 :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문제설정
- 둘째, 예술 현장과 소통을 통해 기후-예술 참여 동향을 파악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창작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셋째,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적 접근과 대안을 도출하고 정책을 제안

2. 워킹그룹 활동의 내용

1) 워킹그룹 구성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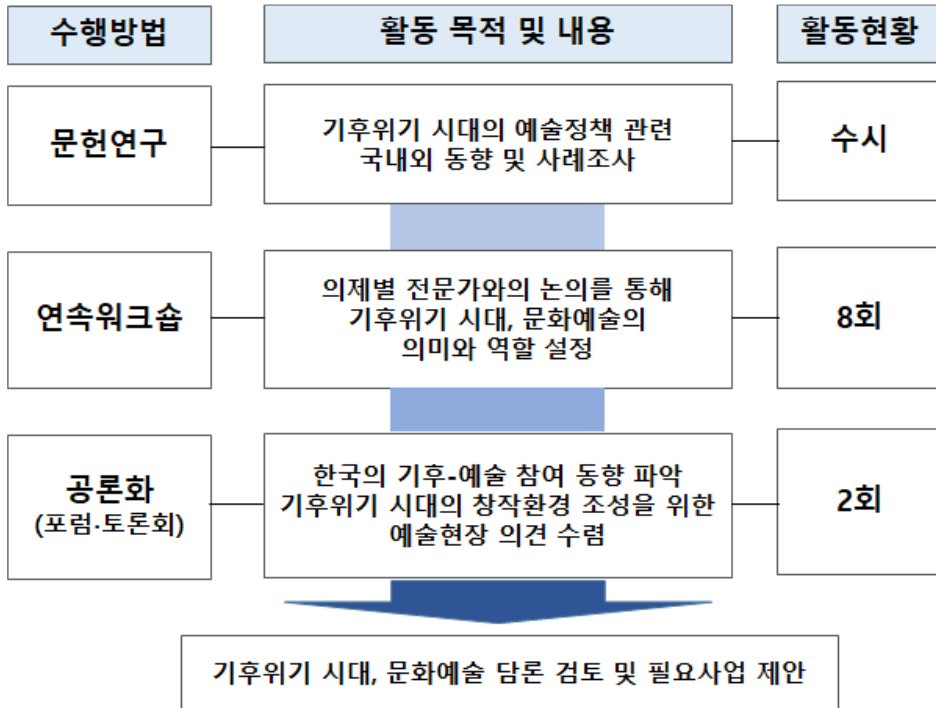
- 기후-예술 워킹그룹 운영의 목적은 기후위기 시대의 맥락에서 문화예술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고, 기후위기 관련 국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아르코 사무처 직원, 환경분야 전문가 등 총 6인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 및 예술가와 소통하고, 내부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예술 정책을 제안

구분		이름(소속)	역할
내부 워킹그룹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	이원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연속워크숍공론화 구성 및 참여, 보고서 집필
		정유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연속워크숍공론화 구성 및 참여, 보고서 집필
		성지수(콜렉티브 텡굴 대표)	연속워크숍공론화 구성 및 참여, 보고서 집필
	사무처 직원	나혜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워킹그룹 운영, 관련 사례조사 및 보고서 집필
		김효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연속워크숍공론화 운영 및 참여
외부 워킹그룹		윤민지(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연속워크숍공론화 구성 및 참여, 보고서 집필

2) 워킹그룹 활동의 과정과 방법

- 기후-예술 워킹그룹은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예술에 대한 담론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적 접근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
- 자료 조사 및 문헌 연구 : 기후위기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의 필요성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사회문화적 변동의 양상과 기후-예술 관련 국내외 사례를 분석
- 전문가 참여 연속워크숍 : 기후위기 시대에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과 역할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속워크숍 진행
- 예술 현장과 함께하는 공론장 : 기후위기 의제에 참여(주제, 활동, 탄소중립 등)하는 예술가(단체)의 의미와 양상을 살펴보고, 기후위기 관련 작업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대안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공론화 진행

[그림 1-1] 기후-예술 워킹그룹 활동내용



II. 문제설정 : 기후위기 시대와 문화예술

- 본 절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맥락과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관련 문화예술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문제로 설정하고자 함. 또한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서 진행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참여 워크숍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기후위기 관련 문화예술정책의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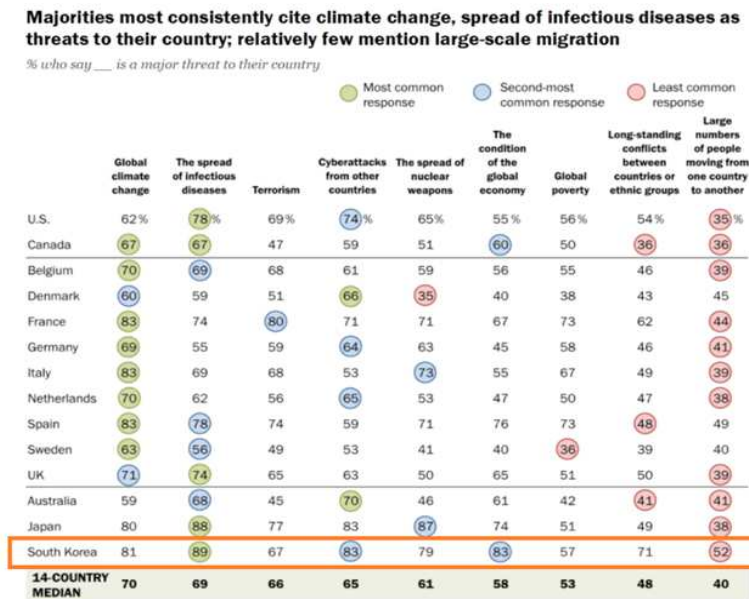
1. 기후위기 시대와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

1) 사회변동과 문화예술 지형의 변화

(1) 문제설정의 배경

- 기후위기의 문제는 물리적 기후, 환경 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태, 사회(정치-경제-문화), 모든 세계(인간-비인간, 물질-비물질)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이자 위기로 문제설정(인식) 돼야 함
-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환경 분야의 이슈로 이해되어왔지만, 이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이슈의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최근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위험이 기후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한국은 코로나19를 가장 큰 위기로 지목했음
 - 한국은 코로나19, 사이버공격, 세계 경제를 가장 큰 위기라고 했지만, 기후위기도 매우 높은 수준의 위기로 인식

[그림 2-1] 국가별 주요 과제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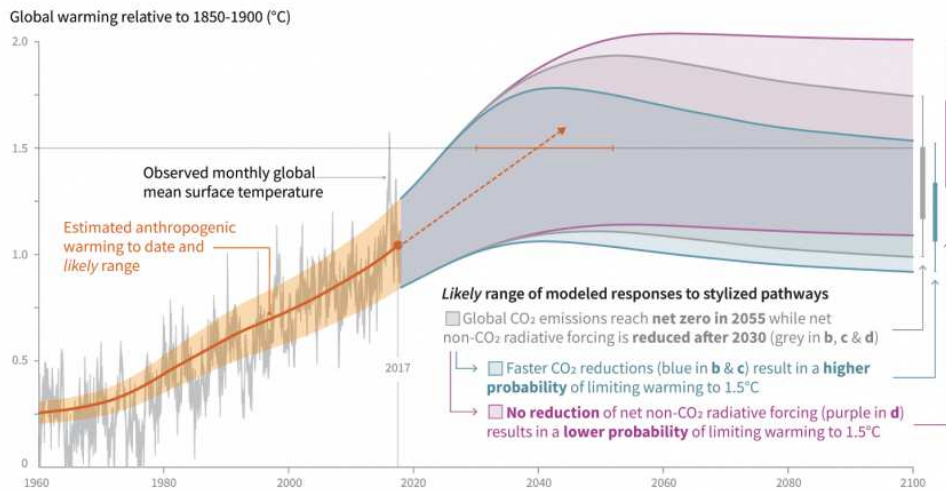
※ 자료 : <https://winmr.com/win-world-survey>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 이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문제는 지구적 차원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파리기후협정의 핵심 인물인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와 톰 카낙 :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 2020년, 김영사)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극단적인 폭풍, 산불의 위험지역에 살고 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석연료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 집단행동이나 집단자살이냐.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한겨레〉, 2022년 7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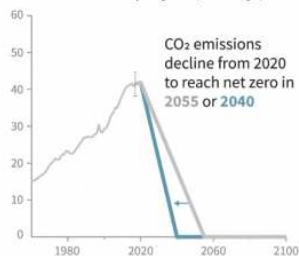
[그림 2-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IPCC 보고서의 핵심 내용

Cumulative emissions of CO₂ and future non-CO₂ radiative forcing determine the probability of limiting warming to 1.5°C

a) Observed global temperature change and modeled responses to stylized anthropogenic emission and forcing path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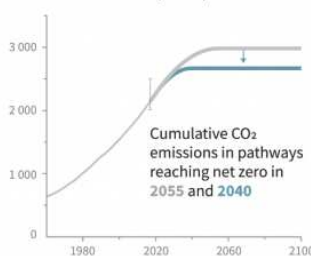


b) Stylized net global CO₂ emission path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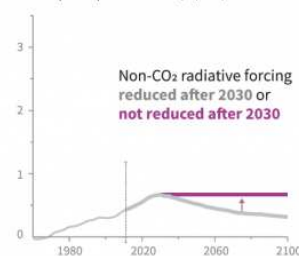
Faster immediate CO₂ emission reductions limit cumulative CO₂ emissions shown in panel (c).

c) Cumulative net CO₂ emissions



Maximum temperature rise is determined by cumulative net CO₂ emissions and net non-CO₂ radiative forcing due to methane, nitrous oxide, aerosols and other anthropogenic forcing agents.

d) Non-CO₂ radiative forcing pathways



※ 자료 : <https://www.ipcc.ch/sr15/chapter/spm>

- 탄소중립은 단순히 탄소배출의 수치를 중립화(순배출량 '0')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의 일반화된 삶의 양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
 - 탄소중립 개념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간 활동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순 배출량 '0'
 - 화석에너지(석유, 석탄, 가스)를 '0'에 가깝게 줄이고 배출한 것은 흡수(산림, 탄소포집저장)해 상쇄
- 현재 기후위기의 중요성에 비하여 문화와 예술 차원의 접근은 매우 부족하며, 다양한 차원에서의(문화와 예술의 다원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
- 지구적,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의 중요성이 부상하였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 기후위기 관련 정책 구조에서 문화와 예술에 기반한 접근이 부재한 상황
 -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나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조차 문화와 예술 관련 의제가 거의 없는 상황
 -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사이의 관계성,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와 공공정책의 현실

[그림 2-3] 한국판 뉴딜의 구조



※ 자료 :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872837511d8c86ce9bd89e821d050f82&rs=/viewer/result/20200720>

- 유럽 등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문화와 예술을 연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
 - 기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제한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이 기후위기 관련 대응이나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는 상황
 - 정부의 기후위기 의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정책 전반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 문화예술계와 문화정책의 영역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환경 의제로 제한되어 이해되고 있음
 - 개별 예술인들이나 시민사회 등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오히려 정부와 공공영역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화적, 예술적 접근이 심각하게 지체되고 있음
 - 문화예술계 전반이 공공지원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부의 정책 주도적 성향이 강한 한국의 문화예술계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개별 예술인이나 작업의 수준을 넘어 공공 지원정책 차원의 접근과 추진이 매우 시급한 상황
-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주체들의) 수행성(자기 실천)을 전제로 하는 고민, 계획 수립, 사회적 협력 등이 필요 : 태도와 관계의 미학, 생태문화에 기반한 사회미학 등
- 국가와 공공의 역할, 정책과 지원사업의 차원을 넘어 사회미학의 측면에서 생태문화적 접근이 필요
 - 공공정책의 책임 및 역할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화적, 예술적 접근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
 - 생태적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화와 예술의 접근 필요
- 최근 중앙정부의 흐름과는 달리 문화와 예술 관련 정책에 있어 생태적 접근의 필요성이 지역문화 생태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림 2-4] 지역문화 생태계의 기후위기 관련 활동들

2022 서귀포 기후예술 컨퍼런스
「소멸의 시대, 예술의 역할」
 2022. 11. 23(수)
 16:40 - 18:15(95분)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생태, 기후위기와 예술

프로그램 안내

개요
 - 지역의 기후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예술 작품 제작 전시

커리큘럼
 - 지역 생태, 기후 위기와 예술 세미나
 - 예술 작품 제작 및 전시회
 ※ 생태영상제작 : 매주 금 13 ~ 16시 첫 월정 : 22. 10. 21. (금)

전시 일정
 - 장소 :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 기간 : 22. 12. 29 ~ 23. 01. 05 (8일간)

주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지역사회혁신본부

추가 모집

모집 기간
 - 2022. 10. 13. (목) ~ 10. 20. (목)

참여 대상
 - 광주 전남 15개 대학교 학생

참여 혜택
 - 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 제공
 - 장학금 차등 지급
 - 수료증 발급

문의 사항
 - 지역사회혁신본부 (062-530-4588)

신청방법
 - QR코드

※ 자료 :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23> (왼쪽), <https://rip.or.kr/archives/81731>

- 자생적이고 개별적인 기후위기 관련 활동, 작업이 현장 예술을 통해서도 확산하고 있음
 - 리서치 기반의 기후위기 관련 예술 활동 확산
 - 생태와 기술, 기후위기와 인류세 등을 주제로 하는 예술 활동 확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공공예술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2-5] 예술 현장의 기후위기 관련 활동들

기후위기와 예술하기:
예술인 ——— 기후위기 ——— 세미나 ———

기획
 곽수아 김나라 김정은 성지수

자문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동조합 이사 이진선 변호사

주최
 기후카페

주관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동조합
 기후정의 창작집단 텀공
 문화공간 풀담

Climate Crisis Seminar for Artists



기후미술관:
Climate Museum
 우리 집의 생애
Life and Death of Our Home

2021
 6.8—8.8

서울시립미술관 I-SEOUL-U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ART
2021 국제기후 예술학술회제

10:00-16:00
2021. 12. 18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613호
 관제사 및 발표자 내편 온라인 녹화중계로 진행

Program

시간	주최	내용
10:00	국립현대미술관	개회식
10:30	국립현대미술관	10:30-11: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11:00	국립현대미술관	11:00-11:3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11:30	국립현대미술관	11:30-12: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12:00	국립현대미술관	12:00-12:3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12:30	국립현대미술관	12:30-13: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13:00	국립현대미술관	13:00-13:3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13:30	국립현대미술관	13:30-14: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14:00	국립현대미술관	14:00-14:3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14:30	국립현대미술관	14:30-15: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15:00	국립현대미술관	15:00-15:3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15:30	국립현대미술관	15:30-16: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 자료 : <https://sooahkwak.com/ClimateCrisis3> (왼쪽 위), <https://culturalaction.org> (오른쪽 위) <https://www.jungle.co.kr/magazine/203031> (왼쪽 아래),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63>

(2) 기후위기의 시대, 사회변동과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

■ 인구 감소와 사회구성의 변화

○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인력의 감소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 심화

-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 인구의 증가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함
- 고령사회에 대한 불안과 연령차별(ageism) 문화의 심화. 고령사회 진단이 '위기' 담론으로 구성되어, 미래 불안, 세대 간 갈등 및 혐오에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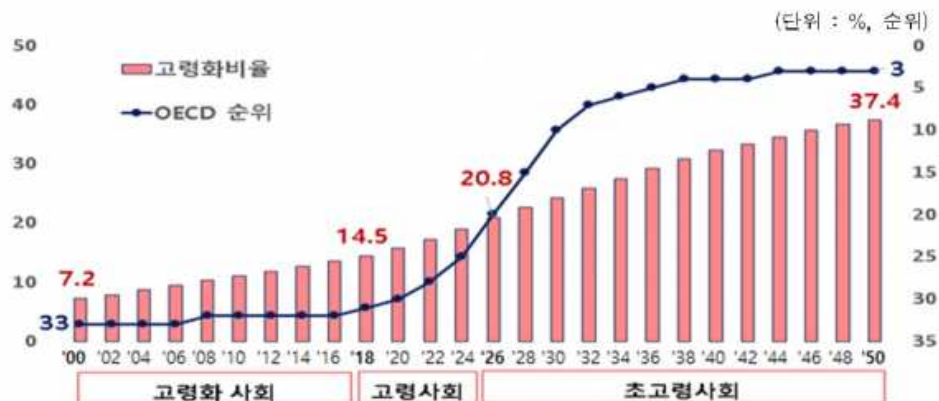
○ 인구구성의 다변화 : 한국인이라는 인종적·민족적 정체성의 다양화

-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186만 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3.6% 차지함
- 국내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다문화 청소년 인구의 지속 증가 추세는 다양성 퍼지고 있는데, 이는 미래 한국인의 지배적인 인종·민족적 특성이 동질성으로 규정될 수 없음을 시사함
-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에도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일상 속 차별 언어와 혐오 문화가 확대됨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은 상태임
-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언론 및 정책의 차별표현 사용은 인종·민족에만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것으로, 포괄적인 차별표현을 공식적인 언어습관에서 제한하는 노력이 요구됨
- 외모지상주의와 미디어의 외모지상주의 확산: 외모지상주의는 성별이나 연령을 불문하고 만연하며, 인종·민족, 장애, 성적 취향, 소득수준, 직업 등에 관한 전형화 된 편견을 반영함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증폭시키거나 고착화하는 측면과 연결됨

○ 1인 가구가 일반화된 한국 사회 : 가족의 개인화

- 2016년 현재, 1인 가구가 540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7.9%를 차지함.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2035년 약 764만 가구, 2045년 약 8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청년실업 및 소득 불안정 심화로 인한 결혼 지체나 포기,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미혼 독신 가구, 이혼과 별거로 인한 단독가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 등의 증가
- 가족 다양성의 증가 또는 가족의 불안정화: 1980년대까지 가족이 개인 보다 우선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가정 내 폭력, 학대·방임 아동에 대한 공공의 개입 등 결혼 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사회문화적으로 확산
- 만혼과 비혼의 일상화는 결혼문화의 변화, 자유와 여유에 대한 갈망에 기초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결혼 적령기 개념이 깨지고 만혼이 증가하며 이혼에 대한 금기 의식도 약화함

[그림 2-6] 한국의 고령화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 자료 :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0165>

■ 기술의 진보에 따른 인간 존재 방식의 혼란과 관계의 질 변화

○ 세 가지 기술(GNR :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의 질적 변화 및 일상화

- 기술 과잉과 폭식의 시대 : 기술(산업)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사회 환경 조성
- 다가올 GNR(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기술 변동은 인간의 삶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넘어 인간과 삶의 정체성(본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함
- GNR 비롯한 기술 변동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 대한 연결성(초연결사회), 횡단성(융복합사회) 등을 비약적으로 강화
- GNR 기술 변동과 조응하는 콘텐츠 노동과 산업의 비약적인 확장 도래

○ 탈 매체, 초연결 콘텐츠 산업의 확산

- 매체 형식(TV, PC, 모바일 등)을 중심으로 제작되고 공급됐던 콘텐츠 산업에서 벗어나 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매체가 연결되는 탈 매체, 초연결 콘텐츠 산업 일반화
- 다양한 모바일, 웨어러블 미디어, 사물 인터넷에서 신체화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산업화

○ 자동화 시대의 일상화 : 노동과 놀이의 형태 변화

- 인공지능(AI), 로봇공학(무인 기계화) 등으로 노동 자동화 시대의 도래
-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넘어 노동이 배제된 존재 방식의 변화 발생
- 기술 발달에 따른 노동 환경의 변화 : 노동 시간의 비약적 단축, 노동과 자유타 시간을 둘러싼 극단적인 양극화 확대
-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여가산업이 노동(생산)의 영역을 결정하는 자본 환경 형성
- 노동을 둘러싼 물리적 시간 단축을 넘어 노동 자체, 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근대적 삶의 양식(노동과 여가, 생산과 재생산) 자체를 해체하고 전환하는 시대 도래
- 여가(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시간)의 차원을 넘어 삶의 시간과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생활양식과 가치체계의 재설계

○ 신체화된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 그리고 생활 체계의 변화

- 기술 변동은 삶의 시각화, 미디어화를 심화할 것이며 “신체화된 미디어” 환경을 형성
-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 역시 현재의 장르(산업별)와 형식(매체)의 경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진화할 것임
- 콘텐츠 산업은 문화산업이라는 한정되고 하위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생활 체계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상품이 될 것임
- “콘텐츠 제조업 시대”에서 “콘텐츠 혁신경제 시대”의 도래

■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의 확대와 안전이 기반 된 도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장

○ 위협받는 지구환경으로 인한 환경 규제 강화

-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의 확대

○ 미세먼지, 폭염 등에 따른 친환경 기술 기반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 강화

- 미세먼지는 산업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도시 환경, 삶의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살기 좋은 도시환경에 대한 욕구 강화와 걷는 문화의 확장

-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대한 공감대 확장
- 근거리 돌봄이 가능한 도시환경과 문화 여건 조성의 욕구 강화

2)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 해외사례 분석

-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에서 환경, 경제, 사회와 함께 문화가 4번째 기둥(pillar)으로 필요하다는 논의는 “환경문제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잠재력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구체화 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과학과 (국제)법 영역에서 주요 관심사였지만 기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화와 정치 영역에서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됨
- 여기서는 기후(환경) 아젠다에서 문화예술에 주목하는 이유와 그러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기후위기(환경문제)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잠재력과 의미를 도출

(1)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예술의 잠재력

-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감각하는 효과적 방식
- 기후위기 아젠다에서 문화예술의 잠재력은 문화예술이 과학의 복잡한 언어와 데이터를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강한 인지와 어떤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기후위기 대응에서 흔히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 괴리인데, 인간의 행동 변화는 감정의 변화, 즉 마음이 움직일 때 해야 가능
- 기후문제를 다루는 예술 작품과 활동은 아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다른 존재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소통의 형태
 -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나 미안함, 책임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지금, 현재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촉진
 - 이러한 이유로 문화예술은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형성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실제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거리감(사회적 인식 VS 개인적 인식), 인식과 행동(참여)의 단절을 연결하는 역할로 예술의 가치에 주목하는 연구 및 활동 사례 증가(Knebusch, 2008; Curtis, 2010; Doyle, 2016; Bentz, 2020 등)
- 기후위기 적응 방법을 찾아가는 실천의 과정이자 기후행동 참여의 플랫폼
-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하는 예술적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후위기(환경문제)에 대한 경계 없는 활동으로 청중(관객)이 기후위기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됨
 -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작동하는 프로젝트에서 참여자는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그 주제에 대한 다시 보기와 소통의 계기가 되고, 보다 근본적인 사고와 성찰을 촉진
- 각각 다른 환경과 조건에 있던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세부 문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
 - 참여자들은 세부 문제에 접근하는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 더 나아가 특정 환경과 조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경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음
 - 기후문제의 당사자, 예술가,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공동의 미래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민주적 경험, 희망 그리고 연대 의식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짐

(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해외 예술부문 동향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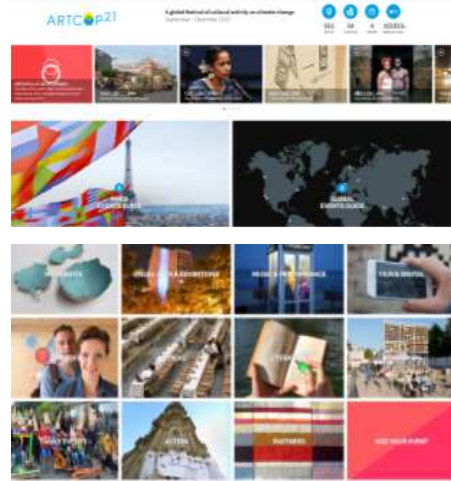
- 1960년대 대지예술, 환경예술 이전에도 사실 미학적 관점에서 환경, 자연과 예술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논의된 주제
- 여기서는 보다 최근에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회 참여적 성격에서 더 나아가 예술과 타 분야의 적극적인 결합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예술 활동의 동향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가) 문화예술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후위기 인식 제고

-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참여 전략의 한계(정보 전달 중심, 일방향적인 캠페인)에서 벗어나,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던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의미
- 주제로서 기후위기를 표현하는 예술작품 및 예술활동은 기후 문제를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게(動)하게 함으로써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기반을 제공
- 이러한 접근으로서 '기후위기' 단일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는 동시다발적, 다양한 이벤트의 기후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기후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 사례 1. : 프랑스 ARTCOP 21 FESTIVAL

- 개요
 -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회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negotiations(COP21)와 동시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자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4개월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
- 목적
 - 기후변화라는 정치적 아젠다에 문화예술을 접목
 - 기후 담론에 예술가들이 주요 이해관계자로 참여, 예술가들이 COP21을 활용하여 행동과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 생태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연대
- 주최 및 후원
 - 주최: 프랑스 Coalition for Art and Sustainable Development(COAL), 영국 Cape Farewell
 - 후원: 파리 시청(mairie de paris),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등이 재정지원 및 협업
- 결과
 - 설치, 연극, 전시, 콘서트, 퍼포먼스, 컨퍼런스, 가족행사 등 총 551가지의 이벤트 추진. 전 세계 54개국, 250명의 예술가 참여
 -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던 국제회의의 접근성을 높였고 기후변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하도록 대중들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자료: <http://www.artcop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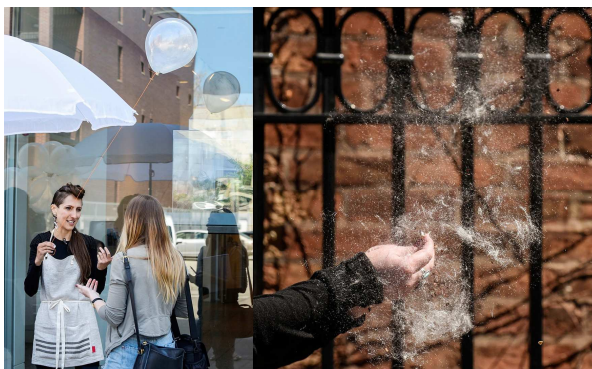
■ 사례 2. 자연자원보존협회 예술인 레지던스

○ 개요

- 미국 자연자원보존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Artist in Residence)는 미국의 환경단체로, 문화예술이 보도자료, 브리핑, 백서 등의 일반적 방법과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에 주목
-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대중의 관과 참여를 증진하고, 자연자원보존 관련 대응의 옹호를 높이기 위해 예술적 접근방식 추진

○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2014년 시작(년 5-6명). 예술가, 설계자, 건축가 등 창조부문 실무자를 작업에 참여
- 제니 캔들러(Jenny Kendler)는 장기 레지던스 아티스트로, 90%가 감소한 왕나비 개체수 감소에의 경각심을 높이고 정책변화와 시민행동을 자극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
- 생분해성 풍선에 왕나비의 먹이가 되는 씨앗을 넣고, 풍선을 터뜨릴 수 있는 나비 날개 모양의 뱃지를 만들어 풍선과 함께 박물관, 공원 등의 푸트 카트에서 배포
- 또한 왕나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공원에 왕나비 조형물을 설치



Milkweed Dispersal Balloons
왕나비 먹이를 풍선에 채워 날리는 프로젝트



Birds Watching 조형물
멸종위기에 처한 왕나비의 눈을 제작

자료: <https://www.creativecarbonscotland.com/>

(나) 사람을 모으고 실천의 동력을 모색하는 문화예술적 접근

- 기후위기 대응은 삶과 체제 전환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적 접근은 보다 통합적·실천적 관점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통합적·실천적 관점은 대전환이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전환과 연계되고, 따라서 문화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속가능 발전에서의 문화 논의에 기반
- 문화예술적 접근의 기후적응 활동은 문화예술과 비예술의 결합을 통해 녹색 전환을 위한 창의적 실천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변혁적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
- 아래는 사람들이 기후위기 아젠다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예술의 역할을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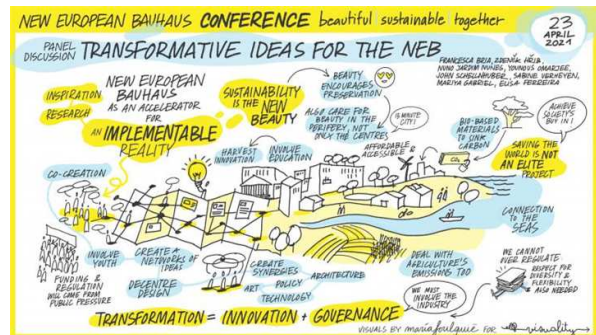
■ 사례 1. (초국가적 차원) EU의 문화예술 이니셔티브 : New European Bauhaus(NEB)

- 개념
 - EU Green Deal을 문화적, 인간 중심적, 긍정적, 가시적 경험으로 만들고자 하는 EU의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이니셔티브(2020년 발표)
 - 기후위기로 정의되는 2020년대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 아래, 1920년대 바우하우스 운동의 포부를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New Bauhaus로 명칭
 - 모든 유럽인이 눈, 마음, 영혼 속에서 아름답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협업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 과학과 기술의 세계와 예술과 문화의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공동창작을 통해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함께 찾는 새로운 접근 방식
- 목표 및 의도
 - 예술, 문화, 사회포용, 과학, 기술 간의 학제 간 연계를 통해 유럽의 환경, 경제, 문화적 목표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창출하는 프로젝트 지원
 -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다양하고 변화할 수 있는 미적 가치의 문화적 차원의 가능성에 주목
 - 단순히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역량 강화와 다양한 능력을 설계하는 것
 - 단순히 수리가 아닌, 순환의 과정을 채택함으로써 치유, 번영, 재생하는 것
 -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살고 싶은 세상으로의 공정한 전환을 추구
- 추진방안
 - (1단계) Design phase : 아이디어 및 사례수집(~21. 여름)
 - NEB의 컨셉과 참여 구조를 만들어가는 단계
 - NEB의 원리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들을 모으기 위해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운동 형태로 진행. NEB 고위급 라운드테이블(18명)이 홍보대사 역할
 - 기후위기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주변을 관찰, 진단하고 공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례/연구/제안사업 수집 과정을 통해 NEB의 방향성을 설정
 - New European Bauhaus Prize : 프로포절 및 우수사례 수집(2,000여 개의 사례, 아이디어, 논문, 사업제안 등 수집)
 - EU 지원의 프레임워크 개발 : 수집한 사례와 대화를 기반으로 NEB가 아름답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장소를 어떻게 촉진하고 확장, 지원할 수 있는지를 설정

- (2단계) Delivery phase: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21.9~)
 - 2단계는 좋은 아이디어를 유럽 전력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으로, 이는 네트워킹, 지식공유, 개방적이고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 지역, 건축가 및 설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를 위해 1단계에서 수집한 제안서로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하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 및 성과, 교훈을 모니터링하고 공유
 - 시민, 기업, 학계와 연계하고 도시 기관의 역량을 강화
- (3단계) Dissemination phase: 아이디어 롤링 및 신규 조치 (23.1~)
 - 1, 2단계에서 주목받은 아이디어와 실천을 확대하고 유럽과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초점
 - 최고의 방법, 솔루션 및 프로토타입을 식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와 실무자 간의 네트워킹 및 체계적 지식을 공유
 - 소통(네트워크) 창구를 열어놓고 개발자들을 기존 네트워크와 연결
 - 아름답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생활양식을 위한 시장부문의 출현을 지원



EU 위원장의 NEB 이니셔티브 발표(2021.1)



NEB 컨퍼런스(2021.4)

자료: <https://europa.eu/new-european-bauhaus>

■ 사례 2. (지역 차원) 'HighWaterLine'(미국 국립예술기금 Our Town Project 사례) 프로젝트

- NEA Our Town Project :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는 별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없으나 지역 대상 지원사업 'Our Town 프로젝트(창의적 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2011년 시작)' 분야 내에 '환경 및 에너지'가 포함됨
- 'HighWaterLine' 개요
 - 지역사회 구성원 및 전문가들이 지역 수준에서 기후변화의 회복탄력성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혁신적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특히 워크숍과 공공예술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지식공유를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협업을 촉진
 - 지역 예술가가 촉진하는 솔루션 중심 워크숍
 - 개인과 이웃의 장소 이야기와 해결책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모범사례를 수집
 - 역사학자들은 기후변화 지역에 대한 지식을 아카이빙, 과학자들은 HighWaterLine 경로를 개발하는 방법을 공유
- 공공예술 프로젝트
 - VISUAL : 기후변화로 침수되거나 잠길 대상을 공개적으로 구분하여 시각적 매체로 표기
 - CURIOSITY DRIVEN LEARNING : 천천히 움직이며 선을 그림으로써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 대화를 나누도록 영감을 제시

- SITE RESPONSIVE : 라인의 중요 경로를 따라 참여자들이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탄력성의 솔루션을 배우고 공유
- COMMUNITY DRIVEN INTERVENTIONS : 프로젝트의 계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공공에 촉구



프로젝트 대상지(플로리다 마이애미)



주요 활동(워크숍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

자료: <https://highwaterline.org/>

■ 사례 3. 스코틀랜드 Velo 커뮤니티 프로젝트

- 스코틀랜드 비영리단체 Bike For Good의 Velo Communities 프로젝트는 개인, 공동체의 안녕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전거 타기의 이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
- 자전거 타기 운동의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자전거 타기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미션이 있었던 상태
- 초기에는 공동체 주변의 환경적 맥락과 문제, 대안 개발, 참여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접근했으나, 이후 연극 제작자와 영화제작자의 참여 등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참여
- 자전거 타기가 단순히 환경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분리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굴하고 알리는 작업으로 추진
- 이 지역은 이민자들의 비중이 높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거주지역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응, 새로운 자전거 도로의 개발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공동체 분리를 완화하는 어떤 지역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부여
- 주요성과
 - Velo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영화로 제작하여 COP24와 기후주간 커뮤니티 모임 등에서 상영
 -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대표성이 낮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기후정의 실현하는 데 기여



Bike For Good의 미션과 비전



Spokes People 인터뷰 참여자

자료: <https://highwaterline.org/>

(다) 문화예술 영역의 기후위기 적응(탄소배출 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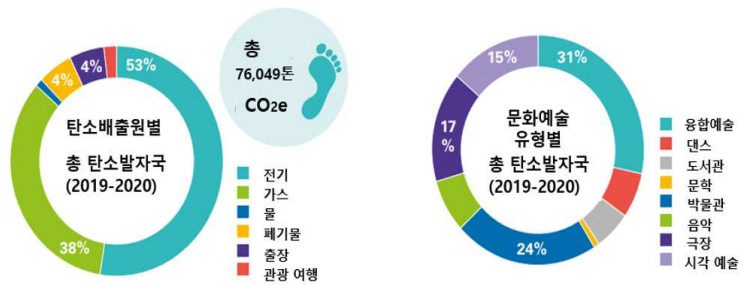
■ 문화예술 영역의 기후위기 적응은 국제적·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Net-Zero)의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조직운영과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도입의 동향과 사례를 살펴봄

■ 사례 1. 탄소배출 저감(Greening) 지원 : "영국예술위원회 Environmental Programme"

- 개요 : 문화예술 영역의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기금 지원의 조건으로 환경계획의 수립 및 성과 보고를 도입(2012년)
- 대상 : ACE가 지원하는 NPOs(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s)
- 내용 : 개별 NPO가 기관(단체) 상황에 맞게 환경계획을 수립, 성과보고
- 파트너기관 : Julie's Bicycle(ACE의 환경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Beyond carbon : 단체가 Creative Green Tool의 탄소 배출량(계량) 성과 외에 환경계획과 활동(비계량)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 Green Print : 전문가와 함께 지속가능성 로드맵 도출과 혁신 지원
 - Spotlight : 에너지 관리 및 탄소 감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 대상: Band 3(연간 £1백만 이상의 기금을 받는 조직)
 - 과학적 기반에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탄소 감소 목표 설정
 - Accelerator :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최고의 전문가와 단체(기관)의 환경 부문 협업 지원
- 성과 : 약 2년간 12,673톤 CO₂e 감축, 229만 파운드 비용 절감(ACE, 2015)



ACE 환경보고서(2018-2019)



NPO의 2019-2020년 탄소발자국 결과

자료: ARKO, 2022, 문화예술부문의 탄소발자국 측정 및 환경계획 수립 사례.

■ 사례 2. 문화예술활동에서의 친환경적 요소 도입 사례

- 축제부문
 - DGTL festival(네덜란드 전자음악 페스티벌)
 - A Greener Festival Award 2018 수상
 - 폐조선소 내 미니시티 조성, circular festival 지향, 자원흐름 정량화
 - 재생에너지 사용, 100% 채식, 탄소배출 감소, 폐기물 감축, 퇴비 활용 등
 - 'Green Man festival(영국 웨일즈 음악 축제)'
 - Best Medium Size Festival 2010, Grass Roots Festival 2012 수상
 - 페스티벌에 지속가능성 요소 도입: 태양에너지, 공정거래 물품 및 지역 농산물 이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적 체험활동, 상상력 모험, 워크숍 등 진행

○ 음악앨범 제작: WOJTEK'S CARBON NEUTRAL ALBUM

- Wojtek은 기후위기에 영감을 받아 새 앨범 'Atmosphere'를 제작
- 지구의 중요성과 모든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스튜디오에서 작업, 모든 단계(녹음, 믹싱, 마스터링)를 탄소 중립적 방식으로 제작
- 앨범 제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 및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작업
- 이러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 데이터와 관행 공유



자료 : <https://dgtl.nl/sustainability>



자료 : <https://www.greenman.net/gallery/>

2. 기후위기와 예술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1) 기후위기 예술정책 연속워크숍

(1) 진행현황

■ 추진배경

- '기후위기와 예술'은 기후위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정책) 차원의 접근이 부족함을 문제의식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한국형 뉴딜 등 기후위기 관련 급격한 정책환경의 변화,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연계 방안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예술적 접근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속 워크숍 추진
- 연속 워크숍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가 예술정책 차원의 대안 모색 : 담론, 정책, 지원사업 등

■ 행사개요

- 행사명 :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연속 워크숍
- 기 간 : 2021년 5월 ~ 12월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 가능
- 방 식 : 비공개 연속 워크숍(월 1회, 8회 워크숍)
- 기후위기와 예술 관련 의제별로 해당 전문가 초대하여 기조 발표를 듣고 함께 토론 : 워킹그룹, 정책혁신소 위원회, 직원 등

■ 추진일정

일정(안)		주제	사회	발제	토론
1	5.25(화) 12:30 예술가의 집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동향조사	이원재	나혜영(행정학)	워킹그룹
2	6.29(화) 15:00 예술가의 집	미학(예술) 관점에서 기후위기 읽기	이원재	임정희(미학)	워킹그룹
3	7.20(화) 15:00 온라인	기후위기와 예술의 문제 설정	성지수	채효정(정치학)	워킹그룹
4	8.24(화) 15:00 온라인	국가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과 예술뉴딜의 접점들	윤민지	이유진(환경정책)	워킹그룹
5	9.29(수) 10:30 예술가의 집	기후위기에 대한 예술가 집담회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작업에 대하여	이원재	성지수, 이해원, 한윤미, 곽수아	
6	10.14(목) 15:00 예술가의 집	기후위기 시대, 예술정책의 과제들	정유란	이원재(문화정책)	워킹그룹
7	11.09(화) 11:00 예술가의 집	기후위기 포럼 추진계획 검토		워킹그룹	
8	11.30(화) 14:00 예술가의 집	기후위기 예술정책 제안서 초안 검토		워킹그룹	

(2) 주요 논의내용

■ 각 회차별 워크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회차별 주제	주요내용	시사점
제1회 기후위기 예술정책 동향과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의 현상과 의미에 내포된 다양한 문제의식과 예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전환 패러다임에서 문화정책으로 접근 : 문화권 보장, 문화영역 녹색 전환, 기후인식 촉진, 생태적 시민의식 확대 어떤 활동들이 있는가? : 대지예술-공공 참여 환경예술, 기후 페스티벌 등 기후인식행동 촉구, 예술 활동 자체의 Greening, 예술+타 분야 확대 등 영국ACE는 규제와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계 Greening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론 :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에서 문화예술의 역할과 연계 - 기후 의식, 행동을 변화시키는 촉진자 - 관점 전환과 대안 상상의 플랫폼 - 예술+타 분야, 참여예술 활발 • 장르 예술로 포함되지 않았던 예술의 새로운 역할, 활동 지원 필요 • 예술계에 '기후인식적용 지원 필요'
제2회 미학의 관점에서 보는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성적 지각(지각력을 어떻게 넓히는가)으로서 미학에 주목 - 세계에 대한 확대된 관심을 이어주는 심층적 심리화의 역할 - 이성과 감성, 물질과 정신 등 이원화의 문제를 넘어서 적극적인 연합이 필요하고 예술정책도 이러한 연합을 고려 •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의 원천 - 상징체계를 통해 외부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데려오고 - 객체로서의 기술, 물건, 사물을 나와 우리의 세계로 연결 •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미학: 겸손, 양보, 공유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론: 기후위기를 감각하고 인지하는 감성적·생태적 관점에서의 미학 - 감성적 지각력이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확대된 관심을 이어줌 - 감성적 폭발을 통해 반응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됨 •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열어주는 예술지원이 필요
제3회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상상력이 필요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표상하고 감각하는가? - 녹아내리는 지구, 불쌍한 북극곰 등 여전히 외부의 시점에서 기후위기를 타자로 바라봄(감각의 분리, 포르노적 감각) - 기후위기 문제를 개별 문제로 바라보는 표상 체계를 뒤집고, 감각화하고 총체적으로 재편해야 함 • 기후위기 시대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예술의 과제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고, 상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 - 감각을 전환하고 맥락을 발굴·표현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사회에 나타내는 예술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론 :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 담론은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놓치고 있음. 전혀 다른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 망치가 예술과 문화일 수 있음 • 정책화는 놓치고 있는 것들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 - 기후위기 시대 예술은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드러내고 사회적 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함
제4회 국가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과 예술뉴딜의 접점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할 질문들 - 기후위기에의 위기감은 있으나 관성의 지속, 성장과 수요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지속, 미래 성장 방향의 전환 필요 - 사회적 지원, 공동체 연대가 약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가격비용 정책은 상당한 부담과 위협이 될 수 있음 - 정부 탄소중립 계획에서는 문화예술 접목 가능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음. 문체부는 홍보로 축소하여 역할을 인지 • 그래서 어떻게: 예술가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 사회의 목표 변화와 그 조건을 무엇인지 논의·인식하는 과정 - 기후위기로 인한 우울감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역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예술의 역할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론 : 미래 세상을 공동으로 상상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 •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회복 인프라 중요 - 공공의료·교통·돌봄, 전환학습과 학교, 전환 문화예술, 자원순환, 재난대비 매뉴얼과 훈련, 지역생산 재생에너지 등 • 기후위기, 탄소중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표현, 해결의 과정을 논의하는 역할 등 모색 필요
제5회 예술인 집담회 기후위기 시대에서 예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 시대, 예술가의 정체성과 작업에서의 특징 - 기후위기 당사자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예술가로서의 감각과 활동가로서의 강력한 행동력) 고민하고 실험 중 -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거대한 기후위기 문제에서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는지를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 - 아카데미와 예술의 협업, 사람을 만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비중이 높음: 참여예술, 거리예술, 예술기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 • 지속가능한 창작방식에 대한 의견 - 기존 예술지원의 기준(수월성)과 경쟁방식이 아닌, 기후위기를 깊게 사유·공유하고 작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 - 기후위기의 정부 정책을 전달하거나 주제로 접근하는 방식 지양 - 지속가능한 창작방식 등 환경문제를 다루보지 않은 예술가들을 다양한 방식(세미나 등)으로 끌어들이는 작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원사업과 다른 방향과 방식 필요 - 예술작업 목적(공공예술), 준비(리서치 기간, 비중이 높음), 예술활동의 특징(관객 참여형, 커뮤니티 아트 등) 등 기존 지원사업과 다른 특징 반영 -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기후위기-예술의 의미와 필요사업을 논의하는 방식 • 지속가능한 창작방식 지원 필요 - 환경과 기후를 전담할 인력(컨설팅), 비용 그리고 정책과 연구 등 - 동료 만들기, 연대의 감각을 만드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조성

2) 기후위기 예술정책 공론장

(1) (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 추진배경

-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예술부문에서도 기후위기와 예술의 관계설정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제기됨
- 기후위기 시대에 예술이 가진 가치 및 기후위기 대응 참여에서 문화예술부문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공론장 개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예술 활동 관련 사회적 공유와 의견수렴을 진행,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을 모색
- 생태문화, 기후위기 등의 전문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현장 활동을 진행해 온 녹색전환연구소의 <녹색전환 공론장>과 협력하여 개최 : 논의의 전문성과 현장성 심화

■ 행사개요

- 행사명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 주최 및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녹색전환청년그룹, 녹색전환연구소
-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14:00~17:00
- 진행방식 : ZOOM과 YouTube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회
- 참여 인원 : 총 68명

■ 포럼 구성

구분	구성 및 참여자
1부 (60분)	주제 : 기후위기와 예술의 관계맺기
	사회 : 성지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녹색전환청년그룹) 기조발제 : 왜 기후위기와 예술인가 : 김정은(다원예술) 사례발표 : 기후위기 예술 사례(각 10분 발표) · 김보람 / 미디어아트 작가, 무제의 길 · 광수아 / 서강대학교 · 박지선 / 독립 프로듀서(프로듀서 그룹 도트) · 김지연 / 사운드아트
2부 (80분)	주제 : 기후위기의 시대, 예술정책을 상상하다
	사회 : 정유란 / 문화아이콘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대응 팀장 · 발제1: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나혜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 · 발제2: 우리에게 이런 예술정책이 필요하다 / 성지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녹색전환청년그룹) · 발제3: 예술뉴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 이완재(문화연대 기후위기 운동모임 Still Aliv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20분	종합토론

■ 포럼발제 및 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내용
(기조발제) 기후위기 시대, 예술로 살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예술의 역할과 필요성 - 기후위기를 수치화하거나 시각화하는 자료는 많지만 그 너머를 보기는 어려움. 그 너머를 상상하기 위해 예술의 역할이 필요 - 기후위기는 나, 타인, 비인간적 존재들과 관계 맺기의 방식을 다시 설정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은 보기의 방식이 아닌, 살아보기의 방식으로 관계를 전환하는 것 • 예술로 살아보기 - 기후위기가 작업의 소재만이 아닌 삶의 방식과 작업의 방식의 연동이 필요 - 이를 위해 예술의 모습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 살아보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예술창작방법론에 대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
(사례발표) 기후위기 예술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기) 2020 기후변화 레지던시에 참여하면서 기후문제에 대해 예술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고민 • (작업1) 기후위기로 멸종위기에 처한 침엽수를 구하는 보드게임 발표 예정 • (작업2) 위 보드게임을 바탕으로 ‘불타는 집’ 전시 진행. 웹게임, 스토리텔링, 인스톨레이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전시용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말자. 사용되는 전력량을 최소화하는 작품을 제작 - 과정특징 : 참여자들과 전시목표 및 내용에 대한 합의 과정 추진. 이전 작업과 전혀 다른 종류의 뇌를 사용하는 느낌이었고 새로운 경험의 축적이 필요함 • (계기) 미디어아트 작업을 하는 학생, 예술가, 기후위기 당사자로, 초기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다가 그것이 기후위기 문제로 이어져,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연계해서 과학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고민 • (작업) 그린버스 프로젝트 : 영국과 한국의 작가(활동가, 예술가, 연구자)들이 기후위기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퀴어생태학(정상과 자연스러운 것에 권력을 주지 않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을 적용한 문구를 프린트하여 시위하고, 장면을 아카이빙하여 웹사이트에 전시 - 과정특징 : 퀴어한 미래를 상상하는 계기, 영국작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인식기 많아 바로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작업이 많음을 알게 됨(예술가이자 활동가) • (계기 및 활동 내용) 화천 산천어 축제의 반생태성, 기후변화로 인한 축제 취소에서 생태 전환의 계기 발견, 2020년부터 화천의 예술 텃밭이라는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의 역할과 책임, 인간중심주의에 저항한다는 의미 탐색 등 - (활동) 예술가, 기획자 등이 모여 6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워크숍 진행(공동 리서치, 공연, 토론 등) 후 개별리서치를 진행공유, 자신의 작업으로 확장(오픈텃밭) - (의미) 위의 과정에서 영감, 지식, 정보를 확장하는 시너지와 연대와 협력(네트워크)이 형성됨 • (계기) 기후위기가 일상에서 감각적으로 경험되기 어려움(잘 안보이고 잘 안들린다)에 주목, 기후활동가와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연결과 돌봄을 노래나 구음을 통해 연결하고자 함(사운드아트) • (작업) 기후활동가들과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연결의 감각들을 담음. 생태, 실외의 소리를 레코딩하고 음향적 사건이 벌어지는 맥락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예술작업 안에 사람(목소리)이 들어오는데, 누락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고민하게 됨. 또한 기후위기를 구체적 일상이나 개인, 시간의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를 주목하게 됨
(발제1) 기후위기 예술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의미(역할) 및 사례 공유 -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감각하는 강력하고 효과적 방법 - 기후위기 적응 방법을 찾아가는 실천의 과정이자 기후행동 참여의 플랫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술정책 방향 : 대응과 전환을 실현하는 동력으로서 문화예술정책 추진 - 문화예술지원의 외연 확대: 뉴딜연계 문화예술 이니셔티브, 기후 커뮤니케이션 예술+타분야 사업 등 - 문화예술분야 Greening 지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추진 필요성&구체적 시그널, 추진기반 마련 등 - 공공부문 기후대응 리더십 실천: 기관운영 환경계획 및 성과보고, 예술현장 녹색전환 기회창출 등
(발제2) 우리에게 이런 예술정책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면서 예술인으로서의 작업이 시민·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분열되지 않고, 예술작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추구 •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예술 작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술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며, 일상적 재난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 예술인 주거, 먹거리, 이동 등 삶의 지속가능성에 관심, 사회적 일자리와 활동 연계, 심리상담, 정신건강 지원 병행 •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플랫폼 지원 : 아티스틱 리서치 작업지원 확대, 자료 아카이빙공유 확대 • 창작활동 및 단체 운영의 녹색전환 지원 : 탄소발자국, 가이드라인, 녹색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다원화된 예술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예술정책 필요 : 포괄적 지원, 주변화된 예술 지원 제고
(발제3) 예술뉴딜의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야, 환경이슈와 문화정책의 연결이 아닌, 재난사회 문화예술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시대와 문화의 관계성에 주목한 문화예술 정책 필요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 인지, 감각의 문제이며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문제, 불평등 해소, 탈탄소 경제전환이라는 3대 축이고, 여기에 예술을 연계 • 결과중심→예술인 중심, 일자리 형성, 리서치 및 과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 예술활동 지원

(2) (아르코 대토론회) ‘기후위기 예술정책’

■ 추진배경

-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이슈가 중요해짐에도 예술정책 차원의 접근이 부재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에의 예술적 접근에 관한 연속워크숍을 추진함
- 본 세션에서는 연속워크숍과 온라인 기후-예술 온라인 공론장의 연장선상에서, 기후위기 시대 예술작업의 의미와 예술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

■ 행사개요

- 행사명 : 아르코 대토론회 세션 7. 기후-예술 세션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13:00~15:00
- 진행방식 : 온라인 줌 웨비나 및 유튜브 생중계

■ 세션 구성

구성	참여자
사회	· 정유란(문화아이콘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발제	· 이해원(Blooming Ludus 공동예술감독) : 기후위기 속 새로운 예술생태 상상하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성지수(콜렉티브 텡굴 대표, 화학작용 공동예술감독) - 공정하고 생태적인 예술계 관계맺기를 상상하며 : 기후정의 예술인 워킹그룹을 제안합니다
토론	· 정안나(극단 수수파보리 대표) :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왜 어려워할까? · 한윤미(바람컴퍼니, 거리예술가) : 지속가능한 창작(제작)이 가능하려면? · 유서진(제주 서양화 작가) :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 이숲(다원예술 뮤지션) : 기후위기×지역×예술 · 유은강(배우) : 기후정의를 말하는 배우의 언어 · 김재상(문화연대 기후위기 운동모임 Still Alive) : 당연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가 가장 어렵다: 기후위기라는 메시지에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가 · 김효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주니어보드 멤버) : 기후정의를 만드는 예술정책 상상하기

■ 세션발제 및 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내용
발제 1. 기후위기 속 새로운 예술생태 상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이 변하고 있나? 주제의 변화 & 작업과정의 변화. 지속가능한 창작→지속가능한 삶으로 • 새로운 예술생태 상상하기 : 공공기관(지속가능한 지원)-예술가(지속가능한 작업)-예술공간(지속가능한 공간 운영) • 제안 1. 그린 모빌리티(친환경적 이동) : 친환경적 이동을 고려한 사업, 공유협업을 위한 지원 • 제안 2. 사업의 유연성(예산, 기간, 협업, 과정 등) 확대, 자원 공유협업 시스템 구축(공간제공 등) • 제안 3. 저탄소 창작작 가이드라인, 교육, 상담기회 등 제공과 함께 공부하고 점검하기
발제 2. 기후정의 예술인 워킹그룹을 제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예술생태계를 생각할 때 드는 걱정 : 의제화되어 소재로 소비되는 접근, 예술계의 윤리적 책임으로 전가, 창작방식과 예술생태계 변화가 나의 작업과 병행될 수 있나? 등 • 문명전환의 시기, 예술계의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그려 나가기 위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후정의 예술인 워킹그룹 구성 : 기후 우울 다루는 동료 그룹 구성, 국내외 기후위기 관련 창작 작업물, 관련 자료 아카이빙, 예술인&생태환경&예술 행정 전문가&시민과의 정보 교류 - 2. 거점공간 마련을 통한 담론 생산&공유 : 작품 이외 예술적 활동을 논의하는 거점과 공론화, 생산한 담론을 예술현장에 공유하고 예술지원제도에 반영, ARKO 기후정의 극장 등 운영을 제안
토론1.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왜 어려워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 수수파보리 소개 : 수수자나 사회적 약자 등 소리내기 힘든 존재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만드는 예술적 작업을 추구 • 기후위기 새내기로서 : 춘천문화재단 중단 예술섬 프로젝트에서 기후위기(정의) 이야기를 시도.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아르코에의 제안 : 공공극장의 사용가능 기기들을 모아 보급대여, 공연관련 물품 재활용 시스템 구축, 기후위기(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예술과 예술인 지원, 기후위기 워킹그룹 구성지원
토론2. 지속 가능한 창작(제작)이 가능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람컴퍼니 활동소개 :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관객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를 발생,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창작방식 추구, 일회성 작업이 아닌 하나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탐구발전시키는 레파토리 방식 작업 • 창작방식의 변화(새로운 감각의 발견) : 창작공연 물품의 재사용, 전력 사용 절감, 예술가 및 관객의 대중교통 이용 장려, 비전 지향 식단과 정보제공, 폐기물 재사용 등 • 지속가능한 창작이 가능할까 : 권한이 있는 담당자와 예산, 탄소중립 자문 그룹, 관객 이동수단 제안, 신작 중심 지원사업의 변화, 잊지 말아야 할 가치들에 대한 고려(배제되는 인간)
토론3.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소개 : 제주도 출신 서양화 작가. 제주 멸종위기종, 야생식물에 대한 개인전 개최 • 제주도의 기후위기 현황 : 한라산 조릿대 군락지의 파괴 등 생태계 문제 지속발생, KBS 다큐인사이드 '붉은 지구'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문제가 심각함을 고발 • 제주도의 기후-예술 활동 : 해양쓰레기 팝업전시 필터, 플라스틱 만다라 자연死 박물관, '멸종위기 동식물'알림 등의 활동이 활발해짐 • 필요한 것 : 기후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토론4. 기후위기x지역x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 테이크아웃드로잉 연대로 시작, 경의선공유지 활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미산자키기 등 - 예술인 : 퇴근순, 아비투스 실험실, 아비투스 예술가 • 기후위기x지역x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배경 : 기후위기 시대, 연결과 돌봄이 중요해진 시대, 개개인의 고립문제, 지역문화 생태계문제 - 필요한 것 :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예술을 통해 기후위기를 공유, 실천, 연결, 돌볼 수 있는 지원
토론5. 기후정의를 말하는 배우의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소개 : 기후정의 활동가 그리고 배우 유은강 • 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연기, 공연, 예술에 대한 갈망 VS 기후의제를 못 따라간다는 불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배경 : 공연예술에서 배우의 주체성, 극단 및 창작 집단 내에서의 발화 권력, 주제의제 선정에서의 소외, 배우를 위한 창작 실험기회 부족 등 - 필요한 것 : 기후정의를 말하는 배우의 언어가 풍성해지고 커질 수 있는 방법 고민
토론6. 기후위기라는 메시지에 어떤 응답을 해야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의 방법은 알고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이유 : 낮은 인식, 상상부재, 공동체성 상실 •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 유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태도-행동 • 기후위기 적응 : 이후를 상상하며 현재를 준비하는 태도와 행동, 대안적 삶과 생활양식을 포함 • 삶-체제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은? 시민으로서 예술(인)의 역할은? : 시민의 보편성+예술(인)의 특수성 ⇒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류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사회로 발산하는 문화예술 행동 • 타 부문과 연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접근, 국제연대 모색
토론7. 기후정의를 만드는 예술정책 상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에서의 제안 : 기후위기 예술정책 제안, 공공적 주제 예술활동 지원 • 기관운영에서의 제안 : 사회적가치 경영, 탄소감축 환경조성, ESG 실현 •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기후정의 주체들과 새로운 관계 맺기-파트너십 - 공공의 플랫폼 마련 : 예술지원기관의 매개역할 강화(정보교환, 관계형성, 네트워킹, 공론화 등) - 기후정의 리더십 실천 :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책무성, 인식확산, 공감대 만들기 등

3. 시사점 : 기후위기에 대한 문화예술의 다양한 접근

“기후의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다”

(아마타브 고시, 『대혼란의 시대』, 2021)

- 기후위기 시대의 의미화 _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원적, 사회적 의미화
 - 문화와 예술의 중요한 역할인 해석과 재현 그리고 상상을 통해 기후위기의 사회적 의미화

- 삶-체제의 전환 _ 기후위기 시대의 ‘삶의 양식’ 전환
 - 기후위기로 상징되는 생산력주의, 성장주의, 발전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대안적 삶의 문화 모색
 - 삶의 양식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과 연계된 사회적 미학화 및 삶의 방식 전환

- 문화 분야의 탄소중립 제도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_ 문화예술의 창작(생산) 양식과 시스템의 전환
 - 문화와 예술 영역 자체의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접근과 실천
 - 예술 창작, 축제, 관광, 문화산업 등에 대한 생태문화적 전환
 - 지역(로컬)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생태문화와 예술 창작 _ 성찰적 문화와 예술의 대안적 상상과 창작
 - 생태문화 관련 예술의 (재)발견과 활성화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활동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삶의 연대

- 문화 분야 공공영역(기관, 시설)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을 위한 성찰과 실천
 -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분야 공공영역 전반에 걸친 생태문화적 운영 전략 수립과 실천
 - 개별 기관·시설들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 로드맵 수립과 실천

Ⅲ.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과제

- 본 절에서는 사회변동과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 기후위기 관련 해외 문화예술 활동 사례 분석, 예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기후위기 시대의 변화된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1.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녹색전환 과제

- 예술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며, 예술가로서의 작업이 시민-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분열되지 않으면서도 홍보 수단으로서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 예술 작업이 가능하면서 작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 첫 번째로 기후위기 및 그와 관련된 재난들은 오늘날 예술가-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큰 위협이라는 점, 나아가 예술가의 사회 운동적 활동은 본질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제도화 및 정책화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안전한 생활과 활동의 지속성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함
- 두 번째로는 예술 활동과 단체 운영의 탈탄소화 및 녹색전환(Greening)에 대한 예술 현장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으나,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어 관심과 의지에 비해 실제 효과가 미미했던 현장의 녹색전환을 국내 창작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녹색전환 방법에 대한 사례, 환경영향평가 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정보와 상호학습을 장려 및 지원하고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해야 함
- 세 번째로는 기존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기후위기 주제의 창작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그런 작업을 하는 예술가 간의 네트워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기존 지원사업이 장르 중심이었던 만큼 다원예술, 소통 중심의 작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다루는 작업이 지원을 받는 것에 제약이 있었음. 더불어 전시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의 지원사업이 일회성 단기사업으로 진행되어오며 따라 기후위기 관련 예술활동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함.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담론과 생활양식 사회관을 요구하고 역사적으로 주변화 되어 왔던 주체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하는 과제를 던지는 거대한 전환인 만큼 이에 대해 예술가들이 함께 사유하고 교류하고 감각을 공유하는 등 공동체를 형성하여 창작에 있어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예술활동에 대한 행정, 예술인, 사회 공동의 이해를 높이고 예술 현장의 필요와 맥락, 운동과 긴밀하게 이어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인식 조사와 정책 효과 분석과 더불어 기후위기 예술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가 필요함

1)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재난사회의 일상화 속에서 물리적인 대책뿐 사회적 고립, 소외, 배제, 치유 등에 대한 사회적 대책 시급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안전하고 결핍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함. 따라서 재난을 겪은 모두가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지속되는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만 함

- 문화적 차원(감각, 감성, 심리, 소통 등)에서 재난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및 체계 마련 필요
- 문화와 예술,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심리와 치유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정책 수립
- 위기 상황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과 사회적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위기 단계별 지원, 맞춤형 지원 등)

■ 예술 작품보다 예술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 예술인 주거, 먹거리, 이동(교통) 등 전반적인 삶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 필요
- 예술 활동 돌봄 지원, 생태 및 돌봄 등 사회적 일자리와 활동 연계
- 지원그룹, 네트워킹, 심리상담,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병행

■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안적 시나리오 수립, 지원방식의 탄력성 확대

- 지원사업 운영방식의 대응력과 탄력성 강화
- 재난과 위기 시에도 공공사업을 실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왜곡된 지원사업 구조 개혁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사례처럼 창작활동의 자율성이 높은 지원사업 확대

■ 일상적 재난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 위기 발생 사후에 경제적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전만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재 방식의 한계점
- 위기관리 및 대응 프로세스가 사전에 마련되어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창작활동 및 단체 운영의 녹색전환 지원

(1) 제안의 근거(배경)

- 예술 활동과 단체운영의 녹색전환에 대한 예술 현장의 관심과 참여 의지는 높으나 실제로 도입하는 데 있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
- 예술가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책임에 대한 인식과 기후위기와 예술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음

“기획자로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로서 미래관객, 미래예술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며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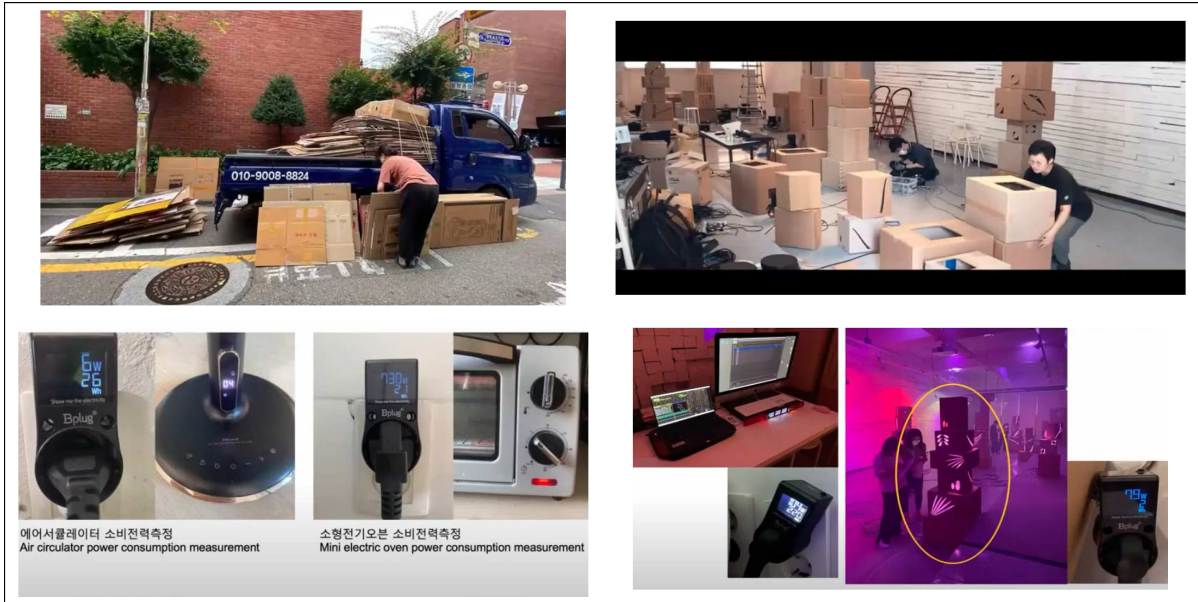
- ARKO·녹색전환청년그룹·녹색전환연구소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2021.11.24.)참여예술인 박00

- 기후위기 시대의 창작을 위한 자치 규약,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창작 및 단체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와 실천 의지가 있으며 실험과 경험이 축적되고 있음.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창작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함. 재료, 의상, 소품 등을 구매하기보다 대여 혹은 재사용하려고 함. 작업 과정에서 전력사용과 폐기물을 절감하려고 함.”

- ARKO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제5차 워크숍 (2021.10.07.) 참여예술인 한00

[그림 3-1] 전시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 이용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들



출처: 김보람(2021). 움직이는 숲. 녹색전환공론장 다시보기 영상

- 더불어 창작과정뿐만 아니라 예술가·시민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시도와 오늘날 지속 불가능한 사회·경제·문화적 체계 안에서 그러한 개인적 실천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있음

“청년 예술인으로서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에 집중하며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에 내 존재의 해로움에 대해 글을 쓰기도 했다. 내가 하는 예술이 내 해로움을 상쇄할 만한 힘이 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있었다.”

- ARKO·녹색전환청년그룹·녹색전환연구소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2021.11.24.) 발표자 김00

“기존의 작업들은 보통 사유에서 시작해 창작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기후위기 시대의 작업은 결국 사유와 창작을 넘어 나 자신의 행동까지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음. 기후위기를 소재로 삼는지 여부, 주제적인 측면이 아닌 예술계 활동의 모든 탄소배출을 줄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창작까지 바꿔야 하는, 먹거리 등 각자의 실천, 교육, 기관의 작가 지원 시스템 등 모든 체계가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이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큰 특이점이자 어려움이라고 생각함”

- ARKO·녹색전환청년그룹·녹색전환연구소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2021.11.24.) 참여예술인 김00

- 기존 활동을 병행하며 시대적 인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 및 생활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추가적인 작업인 만큼 시간과 여력이 부족

“기후위기 창작팀을 위한 자치규약 만들기라는 성평등 자치규약과 같은 작업을 병행하고 싶지만, 작품을 하기에 너무 바쁨.”

- ARKO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제5차 워크숍 (2021.10.07.) 참여예술인 성00

■ 현장의 녹색전환 도입을 위한 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이 필요

- 지금까지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녹색전환 방식에 대한 조사와 연구, 실험에 대해 공식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더불어 예술현장이 녹색전환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인프라, 비용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함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개별) 단체의 몫임. 정책은 그 파급력이 큰 만큼 예술인과 단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꼭 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제의 창작이 아니더라도 지속가능한 창작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ARKO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제5차 워크숍 (2021.10.07.) 참여예술인 한00

■ 작업과정의 녹색전환과 나아가 예술가 삶의 생태적 실천은 작품성과도 관련되어 있음

- 예술가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과 나아가 생활양식의 실천은 사회, 생태, 교육 등 공공적 가치 실현뿐만 아닌 관객에게 느껴지는 작품의 정당성과 설득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
-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흔히 기후위기가 작품의 소재로서만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

“작업을 공유할 때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탄소배출 문제라는 과정마저도 기후정의를 고려해야 그 작업이 결과적으로 관객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말에 동의함. 단순히 창작자의 윤리적 실천이나 선한 의지에 의한 것만이 아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창작 방식과 삶의 양식의 실천이) 작품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작가들이 더 이 지점에 대해 진지하고 진중한 태도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ARKO-녹색전환청년그룹-녹색전환연구소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2021.11.24.) 참여예술인 곽00

■ 문화예술 활동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작품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직간접적인 탄소배출 잠재력이 높음

- 문화예술 산업은 제조업, 발전 등 타 산업에 비해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작음
- 간접적인 탄소배출량에 있어서는 특히 이동과 같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얽혀있고, 따라서 문화적인 잠재력뿐만 아닌 작업의 환경 영향에 대한 확장을 통해서도 그 감축 잠재력이 확대됨

“문화예술 분야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직접적인) 탄소배출이 적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이유는 모든 문화예술은 창작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임. 공연예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은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예술가와 관객, 시민의 만남임. 즉, 모이기 위한 이동이 필요하고 사실상 문화예술산업에서 가장 많은 탄소발자국이 배출되는 부문이 통계적으로 모빌리티 부문임. 가령 작품을 하나 만들 때 작품과 관련된 탄소발자국의 75%가 관객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양이라고 함. 역으로 생각하면 예술가로서 작업, 창작물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가들이 하는 친환경적, 전환적 활동과 생각들을 담아 작업을 확장하게 시켜서 관객과 시민들의 참여까지 함께 고민하며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임”

- ARKO-녹색전환청년그룹-녹색전환연구소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2021.11.24.) 발표자 박00

가. 자료 아카이빙 및 이용 활성화

- 문화예술 녹색전환 이행 사례, 연구 자료, 프레임워크,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 현장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
- 예술 현장에서 실제 녹색전환을 이행했거나 그 과정에 있는 국내외 사례와 현장의 녹색전환 현황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적용 방법, 환경영향평가 틀과 가이드라인, 문화예술과 기후위

기 및 생태위기와 관련된 여러 지표에 대한 통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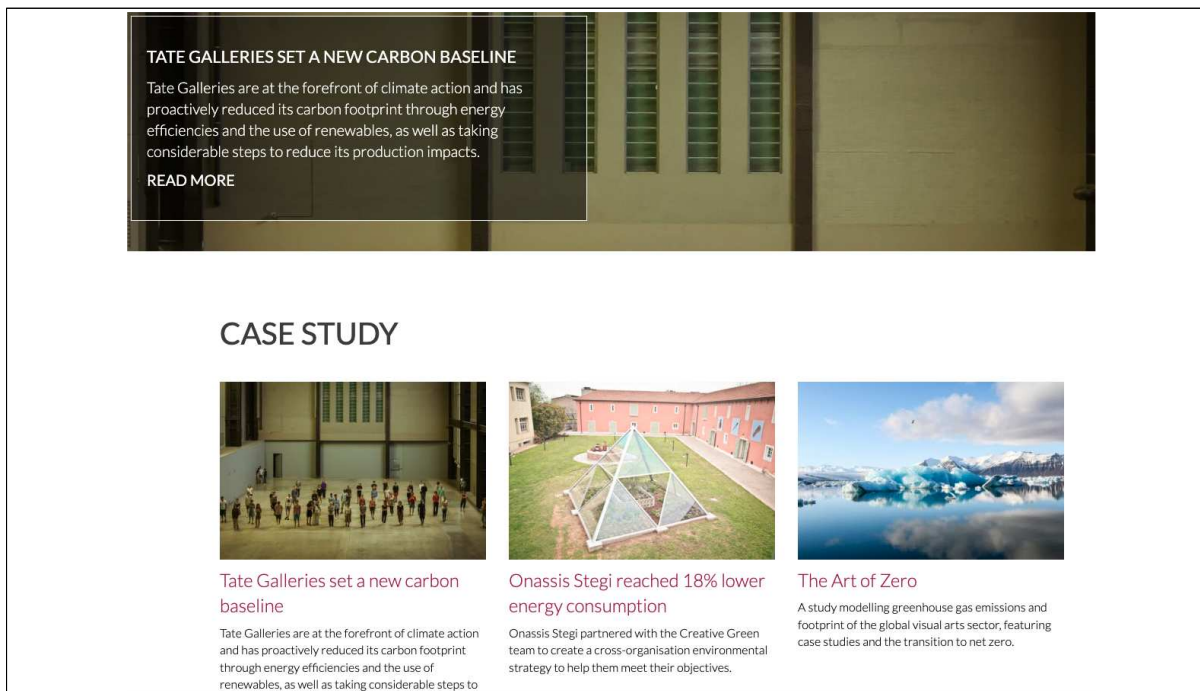
- 이로서 기존에 예술 현장에서 산발적으로 해 온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데이터베이스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여 상호학습 및 정보공유를 쉽게 해야 함

“리서치 작업의 결과물들은 우리가 모두 공유할 필요가 있음. 민간에서 이미 하고있는 것들을 잘 아카이빙 하는 것도 괜찮을 것임.”

- ARKO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제5차 워크숍 (2021.10.07.) 참여예술인 성00

- 구축된 아카이브 및 플랫폼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자료 공유·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아카이브 혹은 플랫폼이 보다 확산하고 따라서 참여자 수 증가에 따라 플랫폼의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 홍보, 캠페인, 대회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영국의 비영리단체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는 영국예술위원회의 파트너기관으로 2006년 설립된 이래 ‘창의적인 기후행동’을 기치로 문화예술계의 생태위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와 연구 자료를 나누고 문화예술부문의 환경리더를 양성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 오

[그림 3-2] 줄리의 자전거의 크리에이티브 그린 프로그램의 일환인 사례 연구(Case studies) 예시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a website page titled 'CASE STUDY'. At the top, there is a section for 'TATE GALLERIES SET A NEW CARBON BASELINE' with a 'READ MORE' link. Below this, three case studies are presented with images and text:

- Tate Galleries set a new carbon baseline**: Tate Galleries are at the forefront of climate action and has proactively reduced its carbon footprint through energy efficiencies and the use of renewables, as well as taking considerable steps to reduce its production impacts.
- Onassis Stegi reached 18% lower energy consumption**: Onassis Stegi partnered with the Creative Green team to create a cross-organisation environmental strategy to help them meet their objectives.
- The Art of Zero**: A study modell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footprint of the global visual arts sector, featuring case studies and the transition to net zero.

자료 : <https://juliesbicycle.com/category/creative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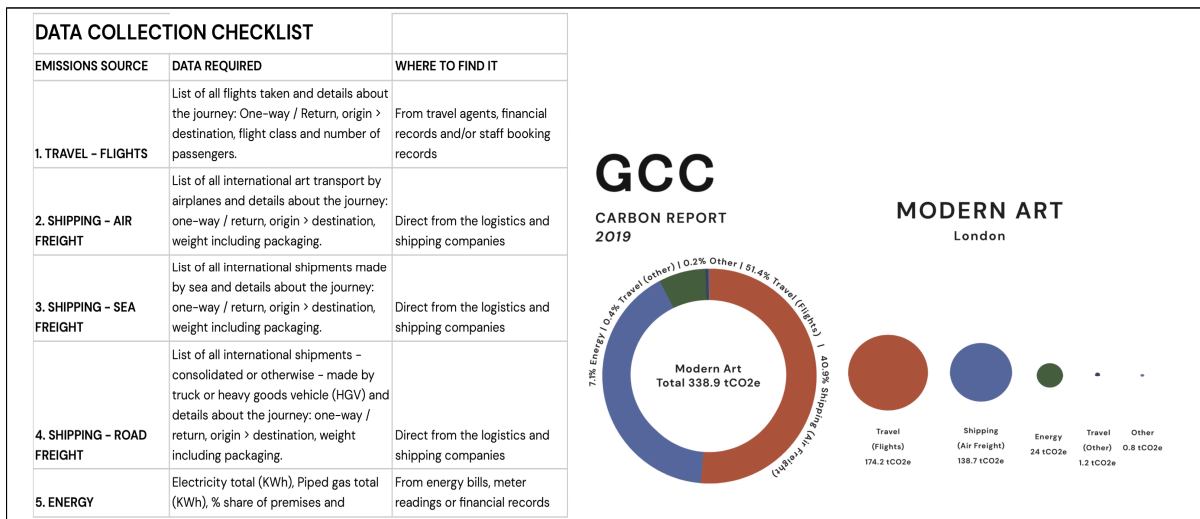
나. 문화·예술분야 탄소발자국 지표와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분야 탄소발자국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더불어 문화서비스 이용 측면까지 포괄해야 할 것임
- 가령 문화예술 분야에서 작업 과정에서 공정상의 탄소를 배출하거나 연료 연소를 통한 직접 배출량뿐

만이 아닌 이용 재료, 조명과 난방 등에 소요되는 에너지에 대한 간접배출량과 나아가 관객들이 작품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출량까지 확장하여 예술활동의 생태적 효과를 살펴야 함

- 보다 포괄적인 생태영향 평가를 위한 지표와 가이드 마련이 필요
- 예술가의 창작 활동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작품을 창작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부터 작품의 참여자가 작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포함하여 작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산출 방법에 대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
- 시각 예술 분야의 탄소를 제거하고 낭비 없는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민간단체 GCC(Gallery Climate Coalition)은 갤러리를 위한 탄소계산기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이동, 작품 등의 운송, 에너지 등을 포괄

[그림 3-3] GCC의 갤러리 탄소배출량 계산기의 입력값이 요구하는 데이터 설명들



자료 : <https://galleryclimatecoalition.org/carbon-calculator/>

- 더불어 작업 과정의 녹색전환의 대한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가이드에 따라 탄소발자국을 집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탄소발자국을 낮추려는 방법에 대해 공공 혹은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 문화예술 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검토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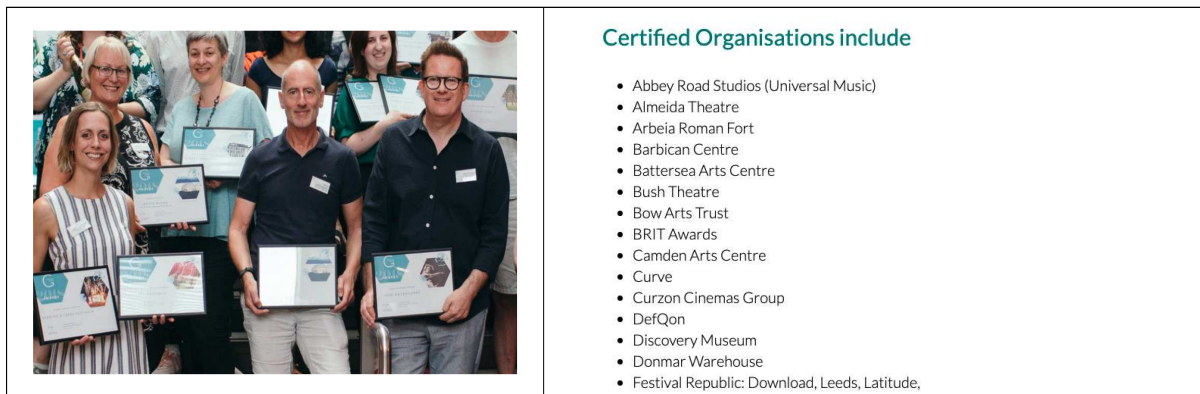
-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단체 운영, 전시 등 예술활동
- 물질 및 에너지 효율적인 단체 운영, 작업과 연출
- (재생)원료 기반 혹은 생분해성 재료 사용
- 공간, 재료의 공유, 사용 후 자원의 재사용, 어려울 시 적절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관객의 도보/자전거/대중교통 이용 장려 (예: 티켓 할인)

- 녹색전환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금 지원, 후원 모금과 그 성과를 관객, 대중 혹은 후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필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역시 컨설팅이 필요함
- 참고로 줄리의 자전거는 우선적으로 문화예술 업계의 탄소발자국 및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는 현황 및 문제 인식을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Creative Green Tools)’를 개발하고 개방하여 세계 곳곳의 문화예술 장소, 기관, 행사 등이 그들의 탄소 및 환경 영향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도움
-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은 문화예술 산업의 생태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

계 50개국 5,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무료로 개방된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을 사용하여 장소, 사무실, 투어, 제작, 행사 또는 축제의 탄소 및 환경 영향을 계산하고 기록, 측정 및 파악

-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 물 소비량, 폐기물 생성 및 재활용, 여행 및 생산 자재 등을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이 결과는 나아가 조직과 기관, 행사 등의 환경 전략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유용한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음
 - 더불어 줄리의 자전거는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을 여러 시점에서 동적으로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와 개선 상황을 평가 및 추적하고, ‘크리에이티브 그린 인증(Creative Green certification)’ 역시 권하고 있음
 -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이 자발적으로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주체 및 단위들의 친환경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첫걸음이라면, 줄리의 자전거는 문화예술산업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인증 제도로 ‘크리에이티브 그린 인증’(Creative Green certification) 역시 마련함
 - 인증 획득을 통해 기관들은 이벤트, 장소, 박물관, 갤러리, 축제 및 사무실 전반에 걸쳐 환경 모범사례를 배우고, 구현하며 및 성과로서 기념할 수 있음
 - 앞서 소개한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크리에이티브 그린 인증은 헌신, 이해 및 개선에 대한 점수를 기준으로 별 1개에서 5개를 조직과 기관에 수여함
 - 이 인증에 참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 및 기회 역시 제공됨
 - 교육 및 학습 워크샵
 - 우수사례에 대한 접근 및 동료 기관들로부터의 학습
 -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마케팅
 - 환경 성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 Julie's Bicycle 환경 전문가의 지원
 - Creative Green Awards 참가 신청
- *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그린 시상식(Creative Green Awards)은 크리에이티브 그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로 이뤄진 크리에이티브 그린 커뮤니티(Creative Green community)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빼어난 생태적 개선과 헌신을 이룬 기관과 조직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 행사를 통해 서로의 성과를 축하하며 공유하고, 자신감을 고취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네트워킹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매년 개최

[그림 3-4] 크리에이티브 그린 인증 예시 및 취득 기관



자료 : <https://juliesbicycle.com/creativegreen-certification/>

- 줄리의 자전거가 제공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그린 자문(Creative Green consultancy)¹⁾은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로, 컨설팅 팀은 지속가능성 여정의 어느 곳에 있는 초기 단계부터 발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조직 또는 네트워크 내에서 지속적인 환경 변화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함.
 - 일단 컨설팅이 시작되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욕이 커지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과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1-3년 패키지도 제공함.
 -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 및 인증과 마찬가지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함.
 - 광범위한 조직적 가치와 통합된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헌신. 여기에는 정책, 직원의 책임, 조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에 대한 평가가 포함됨.
 -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적 영향이 조직/네트워크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여기에는 탄소 발자국(Scope 1, 2, 3)의 측정, 모니터링 및 분석이 포함됨.
 - 제로 탄소 달성을 위한 환경 영향 감소를 향한 개선.
 - 나아가 컨설팅을 통해 조직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크리에이티브 그린 프로그램(Creative Green programme)이 마련됨.
 - 조직 거버넌스(Organisational governance)
 - 직원 역량 구축(Staff capacity building)
 - 이해 및 분석(Understanding and analysis)
 -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Communications and engagement)
 - 네트워크 협업(Network collaborations)
 - 창의적인 작업(Creative work)

다. 예술현장 녹색전환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조원 및 인프라 마련

-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기술과 공급 측면에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친환경 경적 재화는 관행적 재화에 비해 가격이 높게 조성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 재화 구매에 따르는 추가 자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 해소가 필요함
- 녹색전환을 통한 자원 절감 등을 통해 에너지 및 물질 효율성 제고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녹색전환을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재료 등의 부문에 대해 녹색전환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시장 지원 역시 중장기적으로 요구됨
- 더불어 공공부문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녹색 공공조달, 공공기관의 탄소저감 행동과 공공인프라 녹색전환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화예술 현장 녹색전환에 필요한 문화적, 산업적, 경제적, 기술적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1) <https://juliesbicycle.com/embed-sustainability/>

라. 예술 현장 녹색전환과 지원사업의 연계

-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녹색전환을 시도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에도 인센티브를 설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녹색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시 작품의 녹색전환 정도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역시 함께 지원해야 함
- 비용과 재료 조달 방식의 불확실성 등 예술 현장 녹색전환의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요구됨

“기후위기나 미래의제에 관심을 두는 예술가들은 활동가이면서 예술가, 기후위기 당사자인 경우가 많음. 그러한 의제를 다루는 활동은 작업 방식이나 성격, 추구하는 것들, 만나려는 사람들이 기존 관습과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의 지원사업과 장르 중심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ARKO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제5차 워크숍 (2021.10.07.) 참여예술인 성00

마. 예술 현장 녹색전환에 대한 공론화 및 예술계 내외의 네트워킹과 워크숍 지원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비전과 필요성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논의가 필요
- 예술현장 녹색전환을 규제 혹은 강제, 일방적 설득이 아닌 그 이유와 의의, 목적에 대해 공감대와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예술 현장의 녹색전환은 현장의 필요와 맥락을 심분 반영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당사자와 행정의 함께하는 공론장 역시 필요함
 - 정책 형성에 있어서도 예술계 공공, 민간과 더불어 기후위기 관련 비예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야 함
 - 더불어 이렇게 설정된 정책 방향과 추진 필요성 및 계획은 예술 현장에 장기적이고 명확한 시그널로서 전달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지원정책과 지원제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은 것 같음. 자칫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민간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떠맡아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도 우려스러움. 예술현장이 나름대로 지속가능한 창작과정과 창작환경을 고민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많음. 공공과 민간, 민간예술단체, 기후변화 관련 전문기관, 비예술단체 등과의 협업과 협력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이런 구조 안에서 지원제도와 예술현장이 이어지며 지원제도 시스템과 구체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함”

- ARKO·녹색전환청년그룹·녹색전환연구소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2021.11.24.) 참여예술인 박00

- 예술현장의 녹색전환 시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워크숍 운영에 대해 지원이 필요
- 자치규약 수립, 워크숍 등 예술 현장에서 녹색전환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가 기존함에 따라 자생적 녹색전환을 위해 워크숍 운영 비용과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현장 예술가들이 서로 연결되는 모임과 연결, 토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린)포럼을 열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동료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국내의 친구들과 해외 친구들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음. 공공기관에서 심사하고 지원받기 이전의 과정을 공유하고 싶었던 한편, 우리 예술가들 중에 이만큼 기후에 대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어떤 교수님이 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 예술가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리는 의미기도 했음”

- ARKO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제5차 워크숍(2021.10.07.) 참여예술인 이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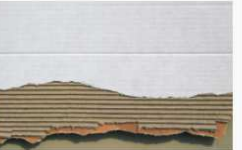

- 기후위기는 위기에 있어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약자와 소수자, 위기에 가장 크고 위험하게 노출된 최전선 공동체와 기후위기에 민감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의 연결과 연대·만남이 중요하므로 예술계 내외의 연결을 위한 정보공유·지원 역시 필요

“예술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함. 더불어 실제로 내 삶에서 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가령 시위 현장과 같은 곳에 직접 속함으로써 체험할 수도 있음. 예술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다른 공동체들에서 위기에 대한 감각과 체험을 더하는 것도 장려되어야 함”

- ARKO·녹색전환청년그룹·녹색전환연구소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2021.11.24.) 참여예술인 김00

- 줄리의 자전거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그들의 생태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활동 방식과 기술을 다양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여정을 돕기 위해 기후정의, 먹거리, 정책 등에 대하여 영감을 주는 연사들과 함께 워크숍 및 행사를 다수 마련해 왔음

[그림 3-5] 줄리의 자전거 행사 예시

 <p>Climate Justice in Creative Practice</p> <p>Join us to learn how we can engage with climate justice issues in our organisations and creative programming</p> <p>Thursday December 9, 2021, 15:00 - 16:30</p>	 <p>Creative Food Culture</p> <p>Join us to learn how our food and drink choices impact emissions, ecosystems and issues of social justice.</p> <p>Thursday November 25, 2021, 11:00 - 12:00</p>	 <p>Culture: The Missing Link</p> <p>JB explores the vital role arts and culture must play in climate transformation, with this COP26 event.</p> <p>Friday November 5, 2021, 10:00 - 11:30</p>	 <p>Culture: The Missing Link – a lens on policy</p> <p>This plenary event, part of The Climate Connection, will unveil the results of research mapping national arts policies to climate policy, asking wha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creative climate movement.</p> <p>Monday October 25, 2021, 13:00 - 14:30</p>
 <p>The Missing Link: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lture and Climate</p> <p>JB is delivering roundtables as part of the British Council's The Climate Connection, a global platform for dialogue, cooperation and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in the lead up to COP26.</p> <p>Wednesday September 29, 2021, 14:00 - 15:30</p>	 <p>Creative Climate Chats: Future Museums and Local Histories</p> <p>Join us in conversation with Sadie Young, Director of Timespan, exploring how museums and galleries can uncover local histories to shape radical change.</p> <p>Friday June 25, 2021, 12:00 - 13:00</p>	 <p>Sustainable production for the arts</p> <p>Join us for our next Creative Green webinar offering guidance and advice on green production practices.</p> <p>Thursday June 17, 2021, 16:00 - 17:00</p>	 <p>Creative Climate Chats: Araceli Camargo</p> <p>Our Creative Climate Chats series returns in May with Araceli Camargo from Centric Lab, exploring climate and public health.</p> <p>Thursday May 20, 2021, 16:00 - 17:00</p>

자료 : <https://juliesbicycle.com/events/>

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적 가능성 확장

- 문화예술 현장 및 공공의 녹색전환을 넘어서, 생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감축뿐만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 전환적 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의 가능성 역시 모색할 수 있음
- 전환적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취약성의 원인을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과 기술적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 및 지속불가능한 사회-환경의 관계로 파악하며 산업주의에 근거하는 개발구조의 재구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념임(Pelling, 2011²⁾; 유정민&윤순진, 2015³⁾)
- Wilson 외(2020)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적 전환과 복잡한 적응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악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개인의 적응 행동을 분류하며 사회적으로 전환적인 효과가 있는 개인의 행동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개입을 제시⁴⁾

[그림 3-6] 적응 행동의 분류 체계

Incremental	Transformative for the individual/household or incremental with the potential to be transformative for society	Transformative for society
Moving valuables to a safer place in the home in a flood-prone area ¹²⁷ Buying flood insurance ¹²⁸ Storing food and other items for emergencies ¹⁵ Making a household evacuation plan ¹²⁷	Undertaking voluntary migration ¹⁵⁸ Installing a rain garden to reduce stormwater runoff ¹²⁵ Moving agricultural operations to a more appropriate climate ¹¹ Changing one's identity by adopting a new livelihood or growing a new crop ^{11,159} Reducing water use through xeriscaping or using drought-tolerant plants ¹⁵⁷ Reducing water consumption in one's own home ¹⁵⁷	Contributing to political engagement to reduce vulnerability of municipal water infrastructure ¹⁵⁷ Initiating eco-villages with green infrastructure that attract residents with prosocial values ¹²⁸ Engaging in planning process to shift from irrigation agriculture to tourism-based economy in response to groundwater depletion ⁹ Working with an NGO to engage policy makers in ways that challenge and disrupt dominant social relations to produce a more sustainable future ⁶⁰
Behaviours below may impose externalities and be maladaptive at scale Behaviours above do not impose such potential negative externalities	Mostly personal benefits	Personal and collective benefits
Installing air conditioning in response to increased temperatures ¹⁵⁶ Purchasing flood barriers for private property ^{128,157} Drilling a new well in response to water scarcity ¹⁵⁷	Removing flood barriers in own community to reduce risk of flooding downstream ¹⁴⁸ Checking on elderly neighbours or volunteering in emergency areas during a heat wave ^{128,157} Assisting in efforts to increase use of prescribed fire to reduce fuel connectivity at large scales ¹⁵⁰	

자료 : Wilson et al. (2020)

- 예술을 통해 기존의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문명의 미학과 사유 방식을 성찰하고, 이를 단순히 보거나 사유하는 것을 넘어 '살고', '새로운 실험인 만큼 실패를 기꺼이 감수하며 함께 살아내는' 전환의 가능성이 있음

2) Pelling, M. (2010).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from resilience to transformation*. Routledge.

3) 유정민, & 윤순진. (2015). 전환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능성과 한계. *환경정책*, 23(1), 149-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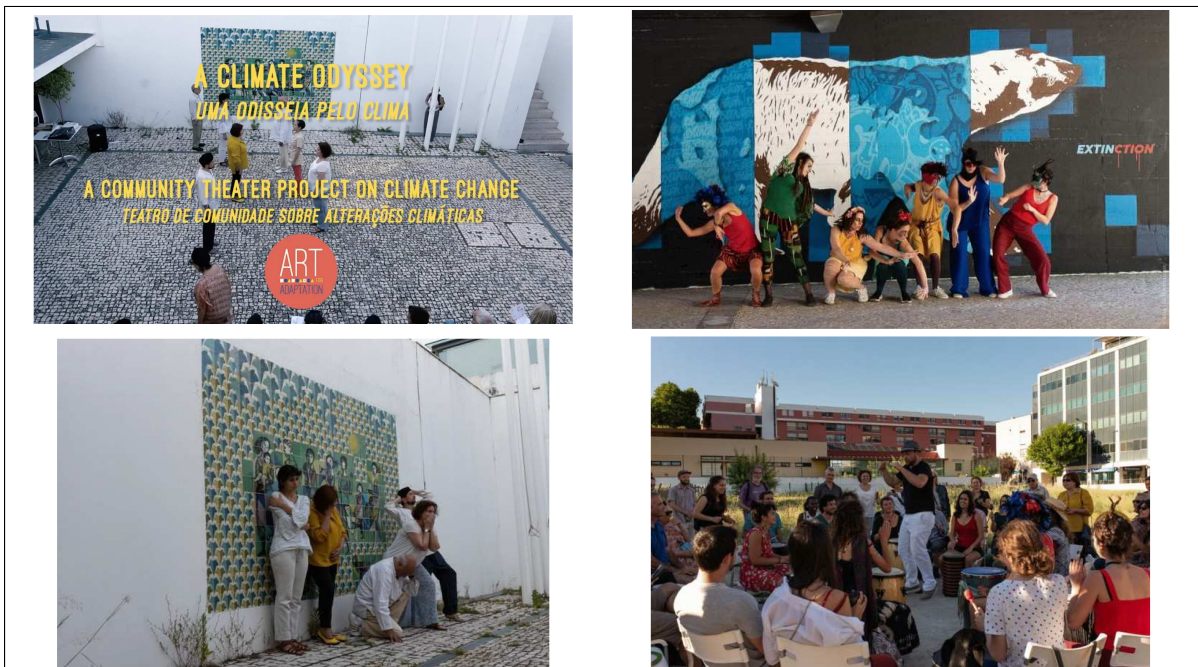
4) Wilson, R. S., Herziger, A., Hamilton, M., & Brooks, J. S. (2020). From incremental to transformative adaptation in individual responses to climate-exacerbated hazards. *Nature Climate Change*, 10(3), 200-208.

“예술은 보기의 방식이 아니라 살아보기의 방식으로 기후위기와 관계를 전환함. 예술은 보여주고 보는 시각 위주 관점에서 탈락해온 촉각적인 사유 방식을 회복시킴. 이성과 생각, 정보와 지식의 영역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몸에 기반한 감각으로 느끼며 만나도록 함. 더불어 접촉은 더듬어가야 하는 민감성을 동반하고 맞닿은 타자의 반응을 기다리고 상방의 관계를 요청함.”

- ARKO·녹색전환청년그룹·녹색전환연구소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2021.11.24.) 참여예술인 김00

- 참고로 리스본의 노바 대학교 Julia Bentz 박사의 프로젝트 ‘ART FOR ADAPTATION(적응을 위한 예술)’⁵⁾은 6년에 걸쳐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은 전환적인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예술과 기후변화 적응 및 전환의 관계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 전개
 - 성공적인 적응은 따뜻한 기온을 견디고, 건조하거나 습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재해 위험의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과 개입 이상의 것을 수반함
 - 더 큰 구조 및 시스템(예: 에너지, 금융 및 사회 기술 시스템)의 전환과 더불어 인간-환경 관계에 대한 인식,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집단 기관에 대한 태도와 같은 신념, 가치 및 세계관의 형성과 관련이 있음
 -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최근 연구⁶⁾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예술 기반 프로젝트 ‘Climate Odyssey(기후 오디세이)’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기후 변화 전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형태의 참여형 공동체가 어떻게 공평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고 있음

[그림 3-7] 기후 오디세이 공연 기록과 장면들



자료 : ART FOR ADAPTATION 홈페이지⁷⁾; Bentz et al.(2021)

5) <https://artforadaptation.com/>

6) Bentz, J., do Carmo, L., Schafenacker, N., Schirok, J., & Corso, S. D. (2021). Creative, embodied practices, and the potentialities for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s. *Sustainability Science*, 1-13.

7) <https://artforadaptation.com/2021/07/09/climate-odyssey-video/>

- 오늘날 만연한 기후 및 생태 불안 혹은 우울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첫걸음인 만큼⁸⁾ 기후위기 시대 물리적 적응뿐만 아닌 정신적, 심리적 적응 역시 예술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음
- 기후위기 시대 정서적 적응과 더 건강한 대응을 찾고 그 과정 역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안전하게 공유하고, 인정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창조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예술의 역할일 것임

“양가감정, 상실, 모순, 애도,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하고 털어놓을 공간, 그런 공간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 그것이 예술이 할 수 있고 해 나아가야 할 역할임.”

- ARKO·녹색전환청년그룹·녹색전환연구소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2021.11.24.) 참여예술인 김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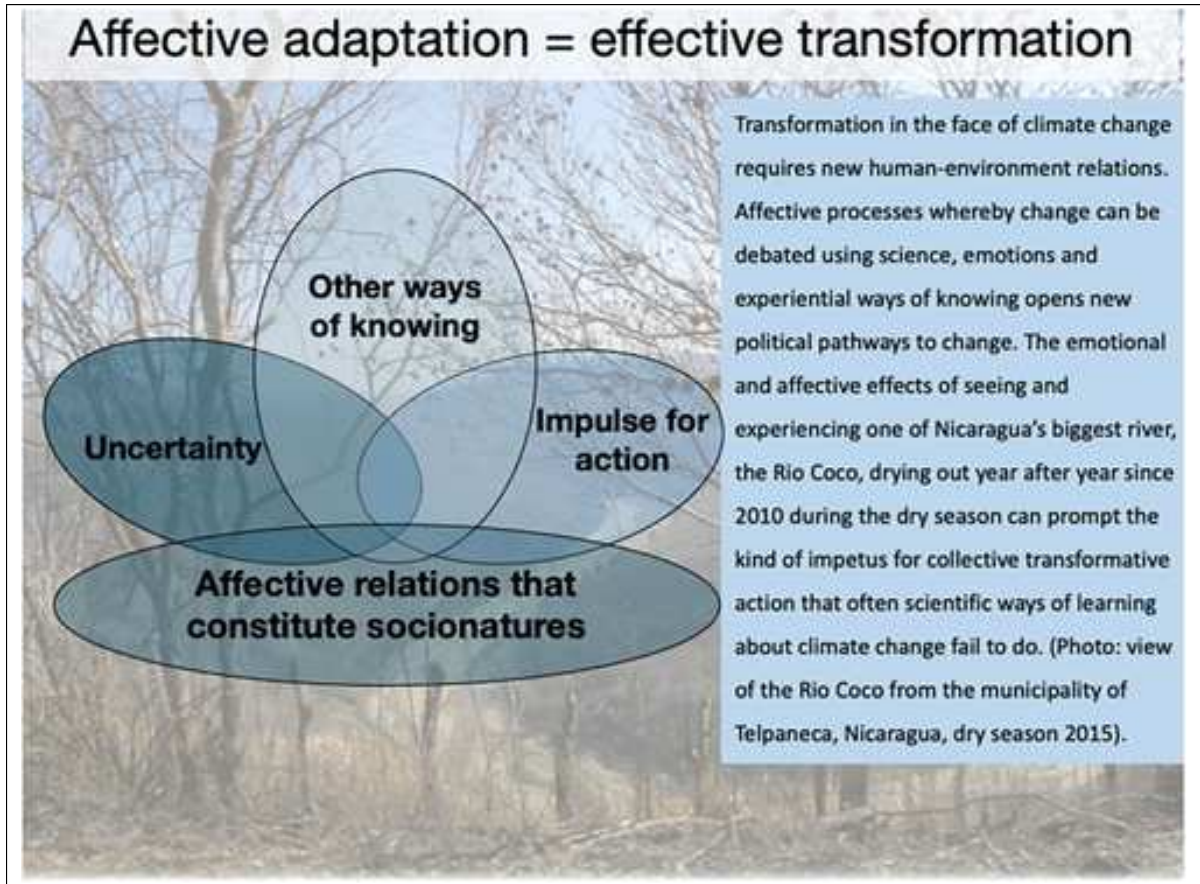
- Verlie(2019)⁹⁾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한 학기 동안의 지속가능성 학부 학생들의 정서적 경험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불안, 좌절, 압도, 죄책감, 슬픔, 희망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경험들이 기후 변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의 특징이라고 보며 기후 변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세계와 자아의 관계적 구성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 지어 지구가 뜨거워짐에 따라 상실되는 관계를 애도하는 동시에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함
 - 집합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은 사람들을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종말의 고통을 견디고 더 지속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세계를 견뎌내는 수행에 관여시킴
 - 이러한 과정들은 자신과 그 관계를 재구성하는데 특히 이 연구는 기후 변화가 특정한 주관성을 구성하고, 재구성하고, 분해하는 방식에 정서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따라서 정서적 적응이 기후변화 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함
- Nightingale 외(2021)¹⁰⁾은 기존 기후변화 적응 연구가 권력과 정치에 주로 집중하여 다루었던 것을 보완하며 정서적 적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서적 적응이 사회 구조적, 규범적, 윤리적 측면을 관계적, 불확실성 및 수행적 측면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다른 존재론적 전환을 나타내며 특히 효과적인 전환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요구하는데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인간의 행동과 정서적 헌신을 생성하도록 돕는 요인이기 때문

8) <https://theconversation.com/feel-alone-in-your-eco-anxiety-dont-its-remarkably-common-to-feel-dread-about-environmental-decline-170789>

9) Verlie, B. (2019). Bearing worlds: Learning to live-with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5(5), 751-766.

10) Nightingale, A. J., Gonda, N., & Eriksen, S. H. (2021). Affective adaptation= effective transformation? Shifting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ransformation from the status quo.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e740.

[그림 3-8] 정서적 전환이 곧 효과적인 전환임을 보이는 도식과 연구 요지



자료 : Nightingale 외(2021)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제

1) 문화영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추진을 위한 예술지원 부문의 역할(IFACCA)

■ 국가 문화예술지원 기관의 국제연합체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The art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014)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 여기서는 IFACCA(2014)의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영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술지원 영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검토함

■ 제안 배경

- 예술 분야는 자연환경을 통해 영감을 받으며,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창조하기 때문에 예술과 환경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 예술 분야에도 실질적인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 존재하며, 지구의 천연자원인 물, 석유, 가스, 식품, 광물 등과 같은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이에 따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폐기물 및 물 사용과 관련된 현안들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해야 함
- 전세계적으로 환경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래의 환경과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
- 환경 지속가능성과 문화 부문의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좋은 환경 관리는 다른 부문의 가치와 잘 맞물리게 되는 총체적인 가치의 집합을 의미함
-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예술 역할의 확립에 대한 의견과 정책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문에서 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참고] 예술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IFACCA, 2014) 주요내용

■ 개요

- 설문대상: IFACCA 회원국 중 23개국(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 중국, 캐나다 등)
- 설문기간: 2013.11-2014.5
- 연구수행: Julie's Bicycle

■ 주요결과

-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
 - 대부분 국가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예술위원회, 문화부처, 지원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주요 동기: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재정 절감)
 - 대부분 국가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부서)은 일부임
- (지원사업에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적용 현황)
 -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력은 높고 환경 활동을 지지하지만,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

- 응답 국가의 1/3은 자금 지원받는 예술단체의 보조금 요건으로 환경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지만, 수행을 위한 지원에서는 한계가 나타남

○ 향후 관심사항

- 예술계의 Greening과 관련하여, 응답 국가의 절반 이상이 지원정책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견됨
 - 개발도상국 : 예술 활동을 위한 지역예술, 공예와 자연유산, 생계를 위한 관광을 중요시
 - 선진국: 주로 감사, 실행계획, 환경 데이터,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책임을 강조
- 영국 예술위원회는 Creative IG Tools를 활용함으로써 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 영감을 주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문화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

■ ‘문화정책 결정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제안의 주요내용

-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네트워크 및 허브를 개발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핵심 조정기능)을 발굴해야 한다.
- 국내외 자원을 개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핵심 파트너를 발굴해야 한다.
- (문화예술 분야의)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고 국제 실행 규범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 지식과 데이터를 구축할 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한다.
- 환경적 영향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환경 영향의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해야 한다.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와 지역단위의 적합한 내러티브 및 증거 기반을 구축한다.
- 문화예술 단체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와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 주요 국가 및 지역 기관이 정책적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갖도록 권장한다.
- 예술위원회 및 문화부처는 지속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부 전략기관과의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한다.
- 문화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장려한다.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지식과 기술 이전 및 교환을 장려한다.

■ 시사점

- IFACCA의 이니셔티브는 문화정책에서 환경(기후) 문제를 문화예술계의 녹색전환(Greening)으로 제한하는 한계가 있지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문화영역 참여의 필요성과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음
- IFACCA가 제시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기후 리더십) 문화예술 부처나 지원기관은 문화예술 영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도입추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기관 운영에서의 환경계획과 성과 보고가 필요
 -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반 구축) 문화예술 기관은 문화예술 단체가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 문화예술영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증진 및 관련 환경지식정보 제공

- 문화부문의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계획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기반 구축
- 문화예술단체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단체운영 및 사업(활동)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 (파트너십 구축) 문화예술 부처 및 기관은 위와 같은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자원개발 및 추진을 매개하는 파트너 발굴협력
 - 관련 기관 및 부처 간 협력을 장려하는 파트너십 구축

2) 기후위기와 예술정책에 대한 예술인 인식조사¹¹⁾

■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예술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또한 FGI를 통해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환경과 관련한 예술활동과의 접목 및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조사개요 및 응답자 현황

[표 3-1]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연구(기후위기 정책 부문)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예술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파악, 향후 관련 정책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등록 예술인, 유관기관 협조로 구성된 예술단체 관계자 등
조사기간	2021.8.2.~2021.8.20
조사방법	응답자 이메일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설문조사 참여 웹페이지 링크 발송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가 예술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 • 기후위기 관련 국가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 기후위기 대응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한 의식 •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 정책에의 동의 정도
응답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응답자 5,596명 - 여성 : 2,862명(51.1%) - 남성 : 2,734명(48.9%)

■ 기후위기와 예술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앞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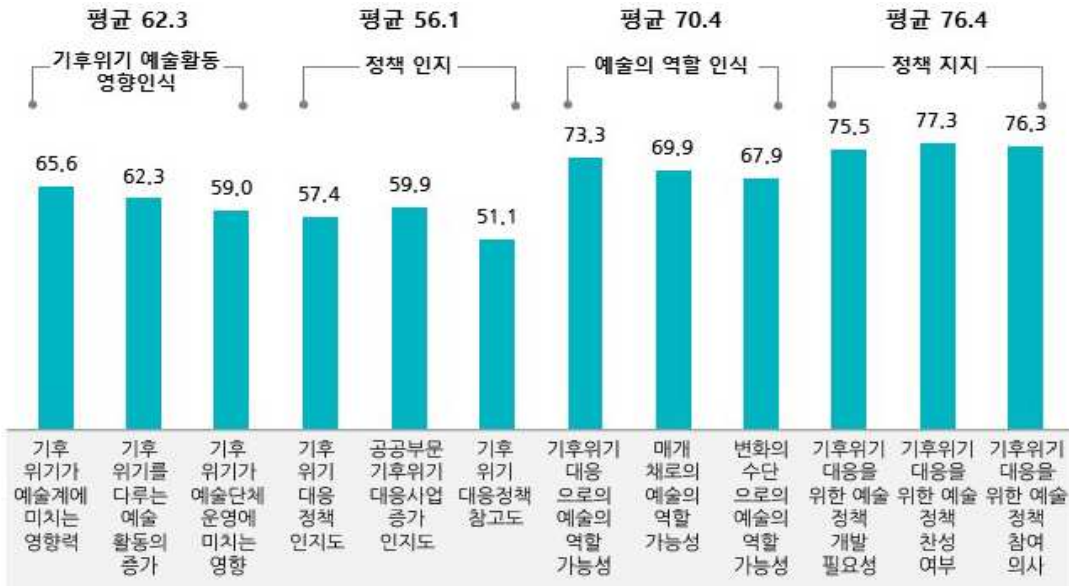
- (기후위기 영향 인식) 기후위기가 예술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기후 위기 상황에 예술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약 66%인데 반해, 기후위기를 예술활동 주제로(62%) 또는 활동(단체운영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례(59%)는 상대적으로 낮음
- (관련 정책 인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에 대한 리터러시와 관련하여서는 타 문항에 비해 전체적으로 인지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평균 56%)
- (예술의 역할 인식) 기후위기 대응에서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73%) 나타남. 반면 문화예술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조사 연구』 조사결과를 활용

나타남(70%)

- (정책지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술정책 개발의 필요성(76%), 정책 도입의 찬성(77%), 정책참여(76%) 인식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3-9]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인식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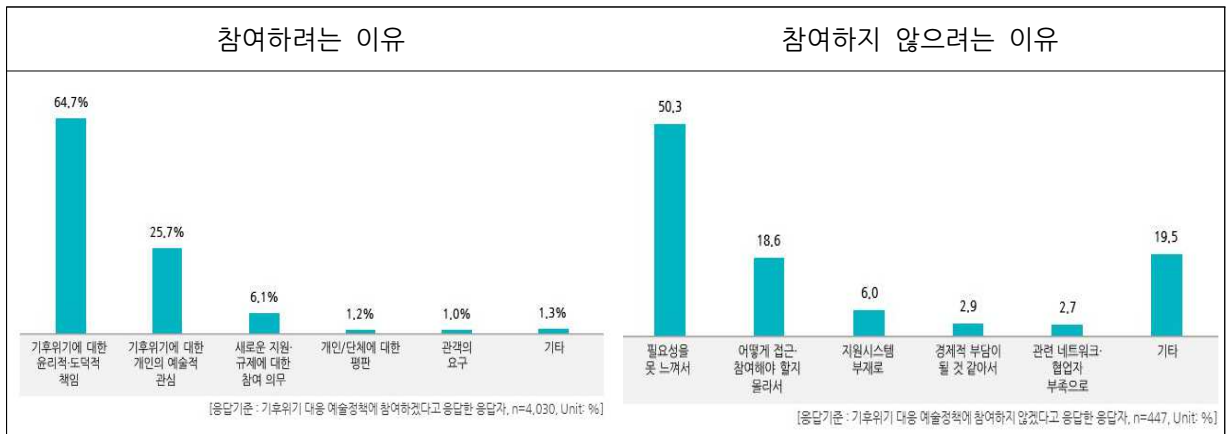
[응답기준: 전체응답자, n=5,596, Unit: 점]

※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음(1점)에서 매우 그러함(5점)까지 응답한 5점 척도 평균값의 100점 환산점수임

- 기후위기 대응 예술정책에 참여 의사를 선택한 이유는 아래 [그림 3-10]과 같음

- (정책 참여 이유) 기후위기 예술정책에 참여하려는 이유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책임’(65%), ‘개인의 예술적 관심(26%) 등 주로 개인적 관심과 의지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정책 불참여 이유) 기후위기 예술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느껴서(50%)와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서(19%) 등 기후위기와 예술정책에 대한 인지 및 참여 방법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3-10] 기후위기 대응 예술정책에 참여의향에 대한 이유



[응답기준: 기후위기 대응 예술정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 n=4,030, Unit: %]

[응답기준: 기후위기 대응 예술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응답자, n=447, Unit: %]

■ FGI 개요

[표 3-2]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연구(기후위기 정책 부문) FGI 개요

구분	내용
추진목적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 키워드(기후-예술)의 심화 발전 및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정책 제안 등 논의
참여대상	예술인, 예술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아르코 정책패널' 등록 동의자
추진기간	2021.8.20.~2021.10.13
추진방법	예술현장에 이해도가 높은 참여자 풀 구성 및 확정 후 대면/비대면 회의 추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관련 예술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및 의미 • 예술활동과의 접목 방법 • 환경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

■ FGI 주요 결과

[표 3-3] FGI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환경관련 예술활동 참여계기 및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기)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소속 기관 및 단체, 프로젝트 그룹에서의 기초 영향, 기후위기 및 재난상황으로 인한 공연 취소, 코로나19 상황 등 • (영향) 워크숍, 스터디, 포럼 등 기후위기 관련 리서치 활동에 참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방법을 예술활동에 적용하거나 채식주의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추구
기후(환경)와 예술활동과의 접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을 기획 • 동물권, 생태보호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술적 리서치 •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일반적 삶에 적용시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 • 지역의 생태자원을 예술작업(활동)에 활용하는 방안 도출
친환경 예술활동을 위한 여건 (환경 관련 공공영역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 활동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친환경 예술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 친환경 예술활동을 위한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 • 예술활동 및 단체운영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도입할 수 있는 컨설팅 등 전문인력 배치 • 공공부문 지원사업에서 지속가능성 관점 도입 : 일회성 지원을 지양, 창작 등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재활용 촉진 및 이동으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지원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 요소 도입

■ 시사점

- (기후-예술 리터러시 제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예술적 접근의 가능성 및 관련 정책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높으나 구체적 역할 및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남에 따라, 문화예술계의 기후-예술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리터러시(Literacy)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독해, 융합하여 새로운 텍스트로 발전시키는 고도의 지적 역량(Tyner, 2014)으로, 문제의 본질과 쟁점을 규명하고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리터러시 향상이 필요
 - 예술부문의 기후관련 정책 인지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부처나 지원기관이 기후-예술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담론개발과 함께, 문화예술계가 스스로 이를 찾아갈 수 있는 경험 및 계기 지원 필요
- (기후위기 대응에서 예술적 접근 기회 확대) 기후위기 대응에서 예술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예술현장의 기대와 관련 활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감각하고 그에 대응하는 실천의 과정으로 예술의 역할에 대한 지원은 거의 부재함
 - 기후변화 대응과 전환을 실현하는 동력으로서 문화예술적 접근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문화예술 작업(활동)을 통해 기후위기를 이슈화하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
 - 기후변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후(환경)와 접목 가능한 예술작업(활동)을 지원
- (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반 조성) 문화예술활동 및 단체운영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시도와 의향이 있으나,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 기후위기-예술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몰라서(2위), 지원시스템 부재로(3위), 경제적 부담이 될 것 같아서(4위), 관련 네트워크·협업자 부재(5위)로 나타남
 - 예술활동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현장의 실천에 비해 공공부문(예술지원 부처 및 기관)의 역할 인식과 정책화가 지체되는 상황
 - 문화예술분야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추진을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지식공유,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용성 향상
- (공공부문에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점 도입) 문화예술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문화예술지원 부처 및 기관의 기후대응 리더십 모색 필요
 - 공공기관의 기후대응 비전과 역할을 공표하고 기관운영, 사업개발, 사업운영 부문에서 기후대응 리더십을 실천
 - (기관운영)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도입, 탄소저감을 위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성과(계량비계량)를 보고
 - (사업개발)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을 실현하는 동력으로서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 및 사업화
 - (사업운영) 예술현장의 녹색전환 기반조성 뿐 아니라, 지원사업 전반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환경적 관점의 기준, 사업점검, 개선방안) 마련 필요

3)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기회 및 역량 향상

- 기후위기 의제에서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담론을 개발·확산함으로써 관련 정책 개발의 토대를 마련
-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기후위기 및 그린뉴딜 의제에서 문화예술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
 - 예술현장에서는 공공부문보다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의제를 공유하고 작업의 주제 및 활동에 적용하고 있어, 기후-예술 담론 개발 및 리터러시 확산이 필요
-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환경적 관점을 넘어 기후위기 의제에서 문화예술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담론을 개발함으로써 기후(환경)+예술 접목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현장, 관련 전문가가 협력적으로 담론을 개발·공유·확산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관련 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확산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를 도출
 - 또한 문화예술계 내에서 기후-예술 관련 담론을 발전시키고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회 및 자발적 활동을 지원
-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기회와 계기를 마련, 문화예술계가 기후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의 의미와 역할을 확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의 탄소중립, 문화예술 생태교육으로 제한된 기후위기-예술의 담론과 역할을 확장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의 의미와 기회를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적 접근은 기후위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기후위기의 적응 방법을 찾아가는 플랫폼 전략 등으로 접근 가능
 -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은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예술적 방식(비엔날레, 축제, 예술작품 및 활동 등)의 사업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동안의 사회참여 전략의 한계(사실과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었던 커뮤니케이션 및 일방향적 캠페인)를 극복하고 다양한 예술적 방식과 사유로 기후위기를 해석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의미를 가짐
 -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은 시민(주민)들이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기후행동에 참여하거나 문제해결을 찾아가는 과정, 문화예술과 비예술의 결합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새로운 접근으로, 문화예술계가 기후관련 문제를 포착, 문화예술의 역할을 탐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

(2) 문화예술부문의 탄소배출 저감 기반 모색

- 국제적·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Net Zero)이 문화예술부문에 적용될 것으로, 문화예술계의 탄소배출 저감 추진을 위한 아르코의 역할 설정 필요
- 문화예술지원기관 국제연합체(IFACCA)는 공공부문이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의무와 역할을 제시
- 그러나 환경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영국예술위원회와 다른 맥락과 기반을 가진 한국적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의 탄소배출 저감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탄소배출 저감에서 아르코 역할에 대한 중장기 방안 모색 필요

- 영국예술위원회는 장기간·다년간 지원하는 NPO(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을 대상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
 - 탄소배출 저감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 파트너 기관(Julie's bicycle)이 영국예술위원회의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 : 탄소배출 측정 툴 무료 사용, 관련 정보 및 사례 공유, 컨설팅 제공 등
 - 시설 개보수(예: LED 교체, 태양광 설치 등)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사업(예: capital investment) 있음
- 창작 프로젝트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체계와 지원방식 틀에서, 탄소배출 저감에 필요한 여건 및 도입의 방식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시설 운영기관, 예술현장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임
-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추진 필요성과 방향(계획)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그널을 제시, 문화예술부문의 탄소저감 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부문의 탄소배출은 건물 부문(시설 운영)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의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¹²⁾에서 문화예술부문의 탄소배출 저감 관리는 공공부문부터 적용 가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지원의 대표기관으로서 문화예술부문의 탄소배출 저감과 관련한 담론과 논의를 확산하고 실질적 적용방안 모색과 예술행정·예술현장의 역량강화에 기여
- ‘기후위기-예술정책’ 워킹그룹 및 공론화에서 제안한 탄소배출 저감의 기반 요소들은 아래와 같음
- 장르별·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장르별 탄소중립 안내서와 증거기반의 탄소배출 현황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탄소배출 계산 툴 및 사용매뉴얼 개발
 - 탄소배출 관련 정보 및 사례를 취합·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예: 포털), 축제·공연 등에서 활용한 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
 - 탄소배출 관련 컨설팅 등 기후-예술 활동과 탄소배출 저감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 문화예술현장 및 예술행정부문의 기후 문해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음

[표 3-4] 문화예술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필요사항 및 현황

제안사항	현황(2022.1현재)
문화예술에 적용가능한 탄소배출 측정 툴 및 사용매뉴얼	전시부문 일부 시도(국립현대미술관)
문화예술 탄소발자국 저감을 위한 장르별분야별 가이드북(툴킷)	일부 번역
기후-예술 활동 및 탄소배출 저감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예술활동 탄소저감을 위한 정보·공유, 컨설팅, 전문인력, 재정지원	부재
예술활동 재료 공유재활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인프라	민간부문 제한적
문화예술계의 기후 문해력 및 역량 강화 기후-예술 동료 만들기, 기관-현장 연계협력	공공부문 부재
	예술가들의 자발적 시도

12)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1년 기준 전국의 3,087개의 문화기반시설 중 비중이 높은 문화기반시설 수 및 공공부문 수는 공공도서관(1,176개), 박물관(900개 중 국공립 437개), 미술관(271개 중 국공립 77개), 문예회관(262개) 등의 순위였음(문화체육관광부,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예술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추진한 선진사례(예: 영국, 스코틀랜드 등)의 경우 활동별 건물유형별 탄소발자국을 측정 후 각 기관별·단체별로 적용 가능한 부문의 환경계획을 수립, 탄소배출 저감을 추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위한 기반이 부재하고 정보·비용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탄소배출 저감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부문의 탄소배출 저감 기반을 단계적으로 모색. 단기적으로는 현재 거의 부재한 문화예술부문의 지속가능 안내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현장과 함께 시설운영 및 주요 사업의 탄소배출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 문화기반시설(극장, 미술관 등) 및 주요 사업에서의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지원사업에 도입가능한 방안을 모색
- (단기) 문화예술부문의 지속가능 안내서 및 현장의 탄소배출 저감 사례를 공유·확산
 -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안내서 발간) 공연예술, 시각, 축제 등의 부문에서 활용가능한 지속가능 가이드북(안내서)을 제작·공유. 관련 정보의 취득 경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해외의 우수한 가이드북을 한국판으로 번역·공유
 - (사례 공유) 이미 예술현장에서 적용되거나 시도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러한 활동 사례들을 취합·공유
- (중장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설 및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창작 안내서를 시범적용. 탄소배출 저감 모델을 테스트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확산
 - (지속가능 가이드북 적용 시범사업) 공연/전시 부문의 지속가능 안내서를 아르코 극장, 아르코 미술관에 적용해보는 시범사업 추진
 - 많은 지속가능한 창작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창작작은 탄소배출 저감 뿐 아니라 다양성, 포용성, 공정 노동 등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어, 이를 종합 고려하여 적용
 -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연/전시 부문 지속가능 가이드북(안내서)을 고도화하고 관련 내용 및 정보를 공유·확산
 - 시범사업에서 공연/전시 부문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면서 증거기반 탄소배출 저감을 테스트하고, 장기적으로 각 부문에 적합한 탄소배출통 개발로 발전시킴
 - 시범사업을 장르/규모 등으로 점차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추가비용 등을 산정,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지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기후-예술 소통 플랫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에서 진행된 기후-예술, 탄소배출 저감 사례들과 논의들을 발신하고 예술현장의 경험과 사례가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 모색
 - (파트너 개발) 문화예술행정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부문이 탄소배출 저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계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 사례공유,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가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단체/기업이 아직 부재
 - 탄소발자국 측정, 환경계획 수립, 지속가능 축제 등 개별 영역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이 있어, 이들 조직과 협력하면서 문화예술부문에 특화된 파트너를 개발·지원
 - (사업점검 및 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을 환경(기후) 아젠다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 기후 아젠다에서 주목하는 문화예술적 접근과 아르코 지원사업(대상)을 점검하고 적용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
 - 문화예술활동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의 관점에서 아르코 사업구조와 방식을 재점검하여 적용 가능한 것

부터 개선

- 사업구조 및 방식 개선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부담 완화방안 모색
- 단체 및 지원규모에 따라 환경적 지속가능성 적용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재원을 매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부문이 기후위기 적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동의 그리고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

- (환경적 지속가능성 이해 증진) 예술현장의 기후위기 예술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높은 데 반해 기후위기와 예술의 연관성 및 기후정책에 대한 리터러시가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관련 정책의 참여도와 수용도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계의 기후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지원 모색
 - 문화예술계에 환경 지식,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기후위기 의제 접근성을 향상
 - 더 나아가 예술현장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예술을 성찰하고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후-예술 동료 만들기 등의 자발적 활동(워크숍, 세미나 등)을 지원
 - 이를 통해 예술현장의 기후 의제 확산과 정착을 촉진
- (예술계의 기후 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적 접근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기에, 무엇보다 기후대응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상상력과 역량 강화가 필요
 - 문화적 활동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계가 문화-환경에 대한 아이디어, 지식, 실천을 교환하고 기후-예술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후-예술 참여 예술인뿐 아니라 기후위기 및 환경에 관심이 있는 예술+타 분야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후적응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계 역량 강화
 -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중요한 타 분야(인문사회, 과학 등)와 예술가의 교차점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과 타 분야의 융합, 예술 확장의 기반 마련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후대응 리더십 실천

- (기관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의제(기후위기)의 유행으로서가 아니라 기관운영 전반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접목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 (환경적 책임 이행계획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등 공공기관의 탄소배출 저감을 의무화하는 정책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환경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
 - 시설 등 기관 운영의 탄소발자국을 측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전과 현재를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환경적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과 방안을 모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환경적 리뷰를 통해 환경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
 -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점검 및 성과를 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책의 목적과 임무
 - 환경 법규, 정부 정책을 반영한 부문별 성과목표, 추진계획 설정
 - ※ 현재 탄소배출 등 현황진단을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와 연동하는 목표설정
 - 기관 시설별부서별 책임 설정 및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구축
 - 사무처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환경적 약속 공유전달

- (사업운영 부문) 중장기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유의 전략적 목표에 환경적 지속가능성 포함하고, 문화예술지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이해관계자, 관객/향유자 등)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함
- (신규사업 개발) 문화예술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및 문화예술계의 탄소중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 예술현장,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사업을 발굴
 -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개발 및 협력 기반(파트너십) 구축
- (기존사업 개선) 위원회 사업을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운영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방향 설정 및 별도 도입영역 등을 발굴·적용
 - (관객 접점 시설)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시설을 중심으로 예술가-예술작품(활동)-관객이 만나는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에서 지속가능성 아젠다 적용방안 모색. 단기적으로는 기관 내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관련 예술현장과는 시도와 경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 맺기 추진
 - (지원사업 부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방향과 요소를 도출, 사업구조 및 운영 전반을 환경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 과제 및 방안 모색.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단계별·주체별 역할설정 및 목표 수립 시, 각 주체가 환경적 지속가능성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및 실천할 수 있는 조치 추진

IV. 결론 :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개선방안 제언

-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정책 제안서의 형식으로 요약,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함

1. 제안 배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7기 정책혁신소위원회는 주요 활동 의제로 ‘예술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로 설정하고 ①예술의 현재성, ②기후위기와 예술, ③예술과 기술을 주제로 하는 워킹그룹을 운영
- ‘기후위기와 예술’ 워킹그룹은 예술정책 환경변화에서 가장 위협적 과제이자 전환의 계기로 제시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이슈에서 문화와 예술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탄소중립과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국가비전과 정책을 제시
-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2050 탄소중립 요구(2018)에 따라, 정부는 2020년 UN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하고(2020.12).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2021.8)을 제정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을 위한 이행체계를 법제화
-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을 발표. 그 중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전환을 추진
- 정부는 한국형 뉴딜사업, 탄소중립기본법 등을 마련하면서 대전환을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연계방안은 부재한 상황임
-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탄소중립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나, 문화예술 부문(문화체육관광부)의 메시지와 정책은 부족한 상황
- 한국판 뉴딜사업에서도 디지털 뉴딜사업에 문화예술분야 데이터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통합적 관점에서 및 개별 뉴딜 사업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의제가 부재함에 따라, 대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정책 과제	주요 내용
가. 국가 문화정책과 기후정책의 접목	1) 기후위기 관점에서 <국가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 수립
나. 재난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대	1) 재난사회의 차원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제도화 추진 2) 예술 결과물과 사업성과 중심에서 사람(예술인·작업자) 중심으로 정책 목표 전환 3)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안적 시나리오 수립, 지원방식의 탄력성 확대 4) 일상적 재난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다. 예술현장의 기후-예술 활동 및 녹색전환 지원	1)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 프로젝트 2) 예술현장의 녹색전환 공론화 및 네트워킹 지원 3) 예술부문의 녹색전환 인프라 구축 4) 문화예술 분야 녹색전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 저감 기반 마련 및 컨설팅 지원 • 아카이브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예술현장 녹색전환과 지원사업 구조 연계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실천	1) 기관운영의 환경책임성 강화 2) 탄소배출 저감 관점에서 사업구조 및 방식 개선 3) 거버넌스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 및 추진

2. 정책 제안

가. 국가 문화정책과 기후정책의 접목 :

기후위기·생태문화 관점에서 <국가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 수립

■ 국가 비전의 주요 내용 (예시)

- 비전 : 삶·체제의 전환을 향한 성장과 순환의 문화사회
- 예술 : 안전한 예술 창작 환경 만들기
- 지역문화 : 지속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로서의 지역문화생태계 지원(축적)
- 문화예술교육 : 탈성장과 생태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시민 배움(터) 확산
- 문화산업과 관광 : 탄소중립 제작유통 체계 구축
- 공공 문화기반시설 : 생태문화(탄소중립) 관점에서의 시설 운영 체계 구축과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 전통문화 :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 관리 체계 재수립, 생태 친화적인 적정기술로서 전통문화 회복과 활성화 지원

■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국가 핵심의제와 문화정책의 적극적인 연계 (예시)

- 생태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 : 예술뉴딜 프로젝트
- 지역문화 생태계를 통한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 문화예술 기반 귀촌·귀농 로컬트러스트 프로젝트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돌봄으로 고령사회 대응 :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 (Aging in Community) 환경 형성

■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평가지표 체계> 수립

- <국가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로드맵>과 <국가 핵심의제 사업>에 대한 기후위기·지속가능성 관점의 평가지표 체계 구축 :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규제조치 등을 통해 실질화
-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 보완 및 활성화 추진

나. 재난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대

1) 재난사회의 차원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제도화 추진

- 재난사회의 일상화 속에서 물리적인 대책뿐 사회적 고립, 소외, 배제, 치유 등에 대한 사회적 대책 시급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안전하고 결핍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
- 재난을 겪은 모두가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지속되는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만 함
- 문화적 차원(감각, 감성, 심리, 소통 등)에서 재난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및 체계 마련 필요
- 문화와 예술,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심리와 치유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정책 수립
- 위기 상황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과 사회적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위기 단계별 지원, 맞춤형 지원 등

2) 예술 결과물과 사업성과 중심에서 사람(예술인·작업자) 중심으로 정책 목표 전환

- 예술 작품보다 예술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 예술인 주거, 먹거리, 이동(교통) 등 전반적인 삶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합적 차원의 관심 필요
- 예술 활동 돌봄 지원, 생태 및 돌봄 등 사회적 일자리와 활동 연계
- 지원그룹, 네트워킹, 심리상담,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병행

3)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안적 시나리오 수립, 지원방식의 탄력성 확대

- 지원사업 운영방식의 대응력과 탄력성 강화
- 재난과 위기 시에도 공공사업을 실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왜곡된 지원사업 구조 개혁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사례처럼 창작활동의 자율성이 높은 지원사업 확대

4) 일상적 재난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 매뉴얼 필요

- 위기 발생 사후에 경제적 피해손실에 대한 보전만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재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접근 시급
- 위기관리 및 대응 프로세스가 사전에 마련되어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다. 예술현장의 기후-예술 활동 및 녹색전환 지원

1)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Adaptation Through Culture) 프로젝트

-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참여 전략의 한계(사실과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었던 커뮤니케이션 및 일방향적 캠페인)를 문화적 전환을 통해 극복하는 것으로, 기후위기를 사회문화적 이슈로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문화예술적 접근을 의미
- 창의적 실천의 잠재력을 실험·탐구하고 전환적 방법을 찾아가는 시도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감각하고 나와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동시에 환경적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문화적 적응(Cultural Adaptation) 프로젝트
 - 레지던스형 : (개념) 예술과 비예술의 구분을 넘어선 동반자적 파트너십으로 전환적 지식을 공유하고 전략을 공동 개발하는 단기 및 장기 프로젝트, (추진방안) 예술+타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리서치형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개발형으로 추진
 - 프로젝트형 : (개념)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화를 사회적 이슈로 전달·소통하거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지역 및 사회의 기후관련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 (추진방안) 이슈화하고 기후위기 당사자와 대안을 찾아가는 활동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예술+과학 등 타분야 연계를 통해 기후적응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전문지식 융합으로 문제해결에 기여

2) 예술현장 녹색전환 공론화 및 네트워킹 지원

-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비전과 필요성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논의가 필요
 - 예술현장 녹색전환을 규제 혹은 강제, 일방적 설득이 아닌 그 이유와 의의, 목적에 대해 공감대와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함
 - 예술 현장의 녹색전환은 현장의 필요와 맥락을 심분 반영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당사자와 행정이 함께하는 공론장 필요
 - 정책 형성에 있어서도 예술계 공공, 민간과 더불어 기후위기 관련 비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야 함
 - 설정된 정책 방향과 추진 필요성 및 계획은 예술 현장에 장기적이고 명확한 시그널로서 전달되어야 함
- 예술현장의 녹색전환 시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워크숍 운영 지원
 - 자치규약 수립, 워크숍 등 예술 현장에서 녹색전환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가 기존함에 따라 자생적 녹색전환을 위해 워크숍 운영 비용과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현장 예술가들이 서로 연결되는 모임과 연결, 토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
 - 기후위기는 위기에 있어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약자와 소수자, 위기에 가장 크고 위험하게 노출된 최전선 공동체와 기후위기에 민감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의 연결과 연대, 만남이 중요하므로 예술계 내외의 연결을 위한 정보공유, 지원 역시 필요

3) 예술현장의 녹색전환 인프라 구축

-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기술과 수급 측면에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친환경 경적 재화는 관행적 재화에 비해 가격이 높게 조성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 재화 구매에 따르는 추가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 해소가 필요
- 문화예술 분야의 녹색전환을 통한 자원 절감 등을 통해 에너지 및 물질 효율성 제고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녹색전환을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재료 등의 부문에 대해 녹색전환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시장 지원 역시 중장기적으로 요구됨
- 공공부문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녹색 공공조달, 공공기관의 탄소저감 행동과 공공인프라 녹색전환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화예술 현장 녹색전환에 필요한 문화적, 산업적, 경제적, 기술적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4) 문화예술부문의 녹색전환 기반 마련

(1) 문화·예술분야 환경영향 측정을 위한 증거기반 마련 및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분야 탄소발자국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더불어 문화서비스 이용 측면까지 포괄해야 함
-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지식과 데이터 구축이 필요
- 문화예술부문의 환경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이 개발·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줄리의 자전거가 개발한 'creative green tools'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Creative Green Tools는 15개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를 구분하고 시설 및 프로젝트의 영향을 측정, 이를 기반으로 환경계획을 수립
- 시각 예술 분야에 특화된 탄소배출 도구로는 국제적 민간단체 GCC(Gallery Climate Coalition)은 갤러리를 위한 탄소계산기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이동, 작품 등의 운송, 에너지 등을 포괄
- 그러나 해외에서 개발된 탄소배출 측정도구는 탄소배출 계수, 언어, 활용 가능한 입력 자료의 한계 등으로 한국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영향 측정을 위한 툴과 안내서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
- 문화예술부문의 탄소발자국을 저감 방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필요
- 줄리의 자전거가 운영하는 Creative Green Tools의 지원체계는 문화예술부문의 탄소배출 저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지침을 제공하고, 사례연구, 친환경 가이드, 벤치마킹 연구, 특정 환경문제(예: 플라스틱 등)에 대한 브리핑 또는 리소스 개발 등을 포함
- 문화예술부문의 조직·단체들이 그들의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사례, 컨설팅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기후·예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파트너 조직 발굴·지원
-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문화예술부문의 접점을 확대하고, 연관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파트너 조직을 발굴·지원
- 영국의 비영리단체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는 영국예술위원회의 파트너기관으로 2006년 설립된 이래 '창의적인 기후행동'을 기치로 문화예술계의 생태위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와 연구 자료를 나누고 문화예술부문의 환경리더를 양성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 옴

- 단, 현재 관련 사업 및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 활동 조직(예: 환경계획 수립, 친환경 축제 컨설팅 등)과 협력하여 관련 활동을 지원
- 중장기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지원조직 설립 또는 협력방안을 모색

(2) 아카이브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문화예술 녹색전환(Greening) 이행 사례, 연구 자료, 프레임워크,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 현장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
- 예술 현장에서 실제 녹색전환을 이행했거나 그 과정에 있는 국내외 사례와 현장의 녹색전환 현황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적용 방법, 환경영향평가 틀과 가이드라인, 문화예술과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와 관련된 여러 지표에 대한 통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기존에 예술 현장에서 산발적으로 해 온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데이터베이스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여 상호학습 및 정보공유를 쉽게 해야 함
- 구축된 아카이브 및 플랫폼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자료 공유 및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
- 아카이브 혹은 플랫폼이 보다 확산되고 따라서 참여자 수 증가에 따라 플랫폼의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효과를 위해 홍보, 캠페인, 대회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

[참고] 문화예술계의 기후 활동(탄소저감 포함)관련 정보수집공유 포털 사례

1. Green Arts Por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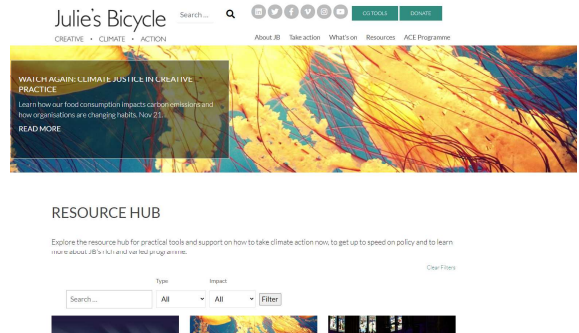
- 스코틀랜드는 문화예술부문의 기후관련 액션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포털을 운영
- 건물, 이동, 협업가능 아티스트부터 기관-정부 정책까지 예술활동의 탄소저감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자료 : <https://www.creativecarbonscotland.com>

2. Julie's Bicycle RESOURCE HUB

- 문화예술부문이 어떻게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정보 및 실질적 툴, 관련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포털 운영



- 자료 : <https://juliesbicycle.com>

(3) 예술현장 녹색전환과 지원사업 구조 연계

-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전환을 시도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설계하여 도입
- 녹색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시 작품의 녹색전환 정도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역시 함께 지원
- 비용과 재료 조달 방식의 불확실성 등 예술 현장 녹색전환의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 구조 마련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후대응 리더십 실천

1) 기관운영의 환경 책임성 강화

- (기관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의제(기후위기)의 유행으로서가 아니라 기관운영 전반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접목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 (환경적 책임 이행계획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등 공공기관의 탄소배출 저감을 의무화하는 정책환경이 강화 될 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환경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사업운영 부문) 중장기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유의 전략적 목표에 환경적 지속가능성 포함하고, 문화예술지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이해관계자, 관객/향유자 등)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함
- (신규사업 개발) 문화예술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및 문화예술계의 탄소중립 기반마련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 (기존사업 개선) 위원회 사업을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운영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방향설정 및 별도 도입영역 등을 발굴·적용

2) 문화예술현장의 탄소배출 저감 기반 마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부문의 탄소배출 저감 기반을 단계적으로 모색
- (단기) 문화예술부문의 지속가능 안내서 및 현장의 탄소배출 저감 사례를 공유·확산
- (중장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설 및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창작작 안내서를 시범적용. 탄소배출 저감 모델을 테스트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확산

3) 거버넌스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정책 계획 및 추진

- 본 정책 제안서의 주요 내용 및 (가칭)〈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구조의 전환 추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기후위기(탄소중립), 생태문화예술, 지속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가칭)문화예술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